

알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희망찬 새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5년 겨울 계간 50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만남 조흥기 춘천평협 회장 · 손희송 주교 · 꾸르실로 심윤식 주간 **특집** 사목교서로 본 2016년 한국 교회
나눔 제32회 가톨릭 대상 시상식 **이야기** 평신도 에세이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교육
배움 복자들의 영성 · 성화에 얹힌 이야기 · 아가다의 음악편지 · 평신도 양서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평신도

2015년 겨울
계간 50호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김선동 루카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명백훈 프란치스코,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서상덕 스테파노,
신동수 세라피나, 오완수 바오로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표지 모델

표지 모델은 살레시오 협력자인
위계평 헨리코, 이정숙 안젤라 부부이다.
헨리코 형제는 초등학교 교사와 특수학교
교장으로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실천하다가 소화초등학교에서 44년의
봉직을 마감하고 정년을 맞이하였다.
부부가 살레시오의 사도적 열정과
사랑의 표현인 '기쁨의 영성'을 살았기에
2남 1녀 중 장남을 살레시오 수도회
사제로 봉헌하여 온 가족이 살레시오
가족으로 기쁘게 살고 있다. '하느님
사랑의 협력자'로서 언제나 활기차게
일과 기도를 일치시켜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낙관주의자인 헨리코 형제는
광주대교구와 수원교구의 평협 임원으로
봉사하였으며, 살레시오 협력자회
관구참사위원장과 꾸르실로 주간을
역임하였다.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8 손희송 주교 인터뷰 / 배봉한

12 평신도가 된다 / 권지영

특집

16 사목교서로 본 2016년 한국 교회 / 서상덕

나눔

24 제32회 가톨릭 대상 시상식 / 신동수

28 평신도 연구 / 정찬남

이야기

30 나의 기도생활 / 류주희

32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 / 김상경

34 나의 삶, 나의 신앙 / 고계연

36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교육 / 김민수

휴식

39 공소의 겨울 풍경, 요골 공소 / 이강덕

배움

40 인문학 강좌 / 김문태

43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 황인수

48 복자들의 영성 / 김길수

52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56 성화에 얽힌 이야기 / 고종희

59 로마서 특강 / 임숙희

62 아가다의 음악편지 / 양인용

64 평신도 양서 / 신동수

소식

66 교구평협·회원단체

회장 인사말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

권길중 바오로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마태오 18,19)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테살로니카 1서 5,15-19)

내가 영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로 기억된다. 하루 근무를 마치고 하숙집에 오니, 그 집 아주머니가 쪽지를 한 장 건넨다. 본당 신부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보내신 전갈이었다.

가방만 방에 들여놓고 급히 성당으로 향했다. 해가 진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신부님께서 긴 망토로 몸을 감싸신 채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 중이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신부님의 묵상 기도가 끝날 시간을 기다렸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손이 시려 무릎 사이에 넣고 비비기 시작하였다. 추위가 아래로부터 점점 위로 온 몸을 파고든다. 그때 신부님이 긴 침묵의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 뒤를 보신다. 예수님의 성스런 변모를 보았

던 제자들처럼 나는 그때 신부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 것이다.

신부님은 내가 오래 기다리지 않았기를 바란 다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기도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인간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통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다. 우리 영신생활의 활력소이며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이루는 활력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도가 없다면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혹 하나님의 자비로 성과를 거두었다 해도 그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영세한 뒤 신앙의 초짜 때 신부님들이 큰 느티나무 아래를 오가시면서 성무일도를 바치시는 모습, 일정한 시간에 수녀님들이 함께 성체

조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 온 행운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21장 36절에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고 명하신다.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늘 기도할 수 있을까?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인 끼아라 루빅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다.

“여러분이 매우 바쁘게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에서 옷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손님이 많아서 기도할 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이 입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정성껏 골라드린다면, 그 손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 한 분 한 분을 모신다면 그것이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그분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공부하고, 노고를 치르며, 휴식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그분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뒤로 나는 수업을 위해서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교실 출입문을 잡고 “예수님, 이 시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과 보낼 한 시간을 오직 당신을 위해

서 바쳐드립니다.” 하고 짧게 기도한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렇게 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맞아주는 학생들을 한 시간 동안 잘 사랑해 줄 수 있게 된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을 순수하게 사랑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때로는 “나는 선생님이고, 너희는 학생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고 권위를 앞세워서 쉽게 수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쉽고 편한 길을 내려놓아야 했다. 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방법을 찾아가며 설명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조용히 묵상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심을 자주 경험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마태오 18,19)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에 앞서서 이웃과의 완전한 일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내 곁을 지나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전령으로 받아들여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잊고 싶지 않다.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사랑해 드리자. 그리고 내가 기도를 약속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자주 손을 모으고 하나님과 대화하자.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조흥기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기도하며 봉사하는 삶이 참 좋습니다.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지난 11월 6~7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회의가 개최된 강원도 강릉의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 행사장에서 조흥기 마티아(71) 회장을 만났다.

조 회장은 행사를 주관하는 교구평협 회장으로서 어깨띠를 두르고 조용한 가운데 분주하게 다니면서도 얼굴에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마티아 형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0월 9일 개최된 티모테오 길 도보순례 모습

● 춘천교구 평협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천교구 평협이 처음 설립된 때는 1983년 6월 5일입니다. 1994년에 3대 교구장으로 장익 주교님이 부임하시면서 평협 조직이 강화되기 시작했지요. 2001년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를 설립하게 됐고, 2004년에는 4두 마차라고도 하는 2개의 평의회(사목평의회, 재무평의회)와 2개의 협의회(구역협의회, 평신도단체협의회)로 조직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상당수 본당 평협과 단체가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춘천교구는 도시지역과 달리 작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에 이르는 본당까지 각기 규모도 다르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는 등 본당마다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교구청이 소재한 춘천지구와 남춘천지구를 비롯해 중부, 서부, 영동, 영북 등 6개 지구로 흩어져 있고, 관할 지역도 넓지요. 주일미사 참여율도 전체 신자의 28% 수준입니다. 서로 보살피고 도우면서 신앙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지 않으면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춘천 평협은 현재 16개 단체와 28개 본당 평협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개 본당에 8만5000명의 신자가 있는 우리 교구가 28개 본당에서만 평협이 활동하고 있으니 평협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어떤 활력과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에 제가 12대 춘천 평협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는 김운회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방침을 잘 따르면서 흥기선 지도신부님의 도움을 받아 평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그러면 평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예정이신지요?

우선 현재까지 해오던 사업들 중에서 꼭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을 선별해 더 잘 추진하고, 교구 평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작해야 할 새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 38선 티모테오 길 도보순례입니다. 지난 10월 9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하느님의 종 이광재 티모테오 순교 65주기를 기념해 열린 도보순례에는 12명의 신부님과 90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양양 읍내의 양양성당에서부터 손양면 부소치재까지 약 11km의 길을 순례했지요. 티모테오 길 도보순례는 우리 교구의 전통이기 때문에 더욱 계승·발전시켜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다른 교구의 교우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구 평협 차원의 새 사업으로는 전국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권역별로 추진하여 교우들이 신앙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더 독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구 평협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구 평협 임원 연수도 일회적인 단합대회 차원을 벗어나서 실무 역량을 강화해서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평협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춘천 평협의 시급한 현안은 한 둘이 아닙니다. 조직을 재구성해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하고, 여성협의회도 재결성해야 합니다. 6개 지구별로 지구협의회도 구성해야 하고, 평신도 재교육 강좌이자 교리교사 양성을 담당했던 명도학당(明道學堂)을 재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현황 파악과 소통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부터 교구 내 60개 본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신부님들도 직접 찾아뵙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협이 본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협의 존재 이유를 교구 평신도들 사이에 각인시켜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할 작정입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교구단체들도 차례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어려운 본당이나 단체에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춘천 평협은 특별히 선교 10%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시 수 있는지요?

제가 김운회 주교님께 임명장을 받으면서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하는 교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춘천평협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교구 지침에 맞춰 인구 대비 선교 10% 달성을 위해 각 본당과 일치를 이루며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춘천교구는 교구 설정 8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복음화율 10%와 주일미사 참여율 40%를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 김운회 주교님 사목교서 발표를 통해 추진한 이후 2015년 현재 복음화율 7.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의 선교 전략은 본당 유형별 맞춤

식 선교입니다. 60개 본당을 교구 규모를 기준으로 대·중·소로 나누고,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했지요. 예를 들어 스무숲성당 등 본당신자 2000명 이상 대규모 본당은 A유형, 입암동성당이나 솔밭성당과 같은 중급 규모는 B유형, 강촌성당 등 1000명 이하 소규모 본당은 C유형입니다. 60개 본당을 그렇게 A유형 8개 본당, B유형 29개 본당, C유형 23개 본당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구 선교위원회가 개발한 ABC 유형별로 선교교육을 실시했지요. 2015년 상반기에만 모두 489명이 참가했습니다.

교육은 본당 실정에 맞는 선교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우려되는 본당은 특별히 하느님 체험 사례를 공유하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목자와 신자들의 선교 열정이나 마인드가 부족한 본당은 사제를 위한 선교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신자들을 위한 신앙체험 나누기와 교육을 통해 선교 열정을 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신앙의 은총에 대한 가톨릭 기본 교리가 부족한 본당에 대해서는 미사 강론 시간 등을 활용해 기본 교리교육을 다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당 차원의 체계적인 선교운동이 부재한 성당은 선교 핵심 인원을 선발해 교구 선교위원회가 실시하는 1박2일 선교교육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선교 자료와 도구도 지원했지요. 이를 통해 강촌성당의 경우 C유형 선교교육에 19명이 참가해 3명의 세례자를 배출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춘천교구는 교황님의 자비의 특별히년 선포와 관련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황님이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자비의 히년 선포일로 선택하신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티칸공의



전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회 폐막미사가 열린 강릉 입암동 성당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앞줄 가운데 춘천교구 김운회 주교와 나란히 앉아있는 이가 조흥기 회장이다.

회를 통해 교회에서 평신도 활동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 만큼 우리 평신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천교구는 김운회 주교님이 2016년 자비의 희년을 맞아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사목 교서를 발표하시고, 전 신자 본당 순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 신자들이 60개 모든 본당을 순례할 수 있도록 ‘순례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에는 각 본당을 소개하는 간단한 현황이 기록돼 있고, 방문하는 본당에서 본당순례 확인 도장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구의 본당 신자들은 1년 동안 60개 이웃 본당과 5곳의 사적지를 순례하면서 희년을 위한 교황님의 기도문과 춘천교구 순교자 시복시성 기도문, 그리고 선교기도문을 봉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하는 희년의 의미를 더욱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반기 평협 연수회 때 논의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과 관련해 춘천 평협은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 오고 계신지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각 본당에 전달돼서 본당 차원이나 본당 평협 차



제12대 춘천교구 평협임원

원에서 추진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추진하는 전략도 먼저 교구 평협을 힘 있는 실행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 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중에 평협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탄력이 생겨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도 잘 추진될 것입니다. 내년엔 6개 지구를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먼저 가진 다음, 교구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10월 9일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 행사 때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 **교구 평협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오신 것은 무엇인지요?**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예레 48,10)는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려고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늘 주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레지오 등 신심단체 활동이나 평협 활동을 하면서 매사에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제 삶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때로는 본당을 방문하다가 평신도와 성직자·수도자 사이의 갈등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와 수도자를 믿고 사랑하고,

성직자와 수도자는 평신도를 이해하며 사랑한다면 아무 문제도, 갈등도 없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 **회장님은 춘천교구 평화의 모후 레지오 단장, 본당인 퇴계동 본당 사목회장을 지내시는 등 신실한 신앙을 살아오신 것으로 압니다. 회장님께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5대째 이어오는 구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입니다. 제 아내도 저를 만나 살면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점은, 저를 비롯해 저희 집안 3남매 모두가 배우자들이 하나 같이 비신자였지만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은 후 혼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와 봉사를 하라는 성모님의 군대인 레지오가 너무 좋습니다. 환자를 방문하고, 상을 당한 상주를 위로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나가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평신도사도직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 주님께서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손희송 주교 인터뷰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대담 · 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59세)를 11월 27일 서울 중곡동 주교회의에서 만났다. 1957년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 1972년 서울 성신고등학교(소신학교), 1975년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한 손 주교는 1982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교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1986년 7월 4일 사제품을 받았다. 1986-1992년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마치고 1996년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10월-1994년 9월 서울 용산본당 주임신부로, 1994-2015년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와 2012년부터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으로서 일하다가 2015년 8월 28일 주교품을 받고,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중서울지역과 가톨릭학교법인 담당 교구장대리로 사목하고 있다.

우리는 6대째 구교 집안인데, 저는 5남매 중 막내예요. 형님 두 분, 누님 두 분이 있는데 늦둥이로 났어요. 바로 위의 형과 여덟 살 차이가 나요. 예전 교우들은 주신 대로 낳았잖아요. 구교 가정이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공소에 신부님이 오셨다고 하면 열 일 제쳐놓고 대접을 하셨지요. 어릴 때부터 성소가 싹뻗었다고 봅니다.

큰집이 양조장을 해서 양조장집 아들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실속은 없었죠. 어머니는 우리같이 비천한 집안에서 무슨 사제가 나오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때가 성 요한 23세 교황님 시절이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황님도 산골 가난한 집안에서 나오셨어.” 하시면서 어머니 마음을 달래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성 요한 23세 교황님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웃음)

중학교 때 소신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평균화가 시행되어 서울로 전학이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기로 하고 연천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남녀 공학이었어요. 나는 신부가 되어 혼자 살 사람이니까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자

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웃음) 제가 용산본당 신부가 되었을 때 그때 여학생들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좋게 보았대요. 저는 부끄러운데 개들은 신기했대요.

1982년에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유학 나가는 사람들은 방을 구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교회의 덕을 이만큼 봤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깨달았지만. 유학 시절에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컸죠. 성탄 때는 은인 본당에 가서 지내는데 쓸쓸하죠. 마음이 시렸다고 할 수 있을 듯한데, 그래도 깨어 있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마지막 몇 해는 수도원에서 지냈는데 성탄 밤 미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녁을 먹고 거리를 걷다 보면 다들 집에 가고 버스도 다 끊기고, 무척 쓸쓸했는데 지나고 보니 굉장히 쓴 약이 되었어요. 신부님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유학 시절에 공부도 하고 뿌리 깊은 그리스도교 문화를 안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견디는 걸 배웠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요.

주교가 된 지 3개월이지만 사목국장으로서 교구청에서 지낸 지는 3년이거든요. 교구장님이나 다른 주교님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주교직이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주교가 되고 나니 설 때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랬지요. 내가 여러분의 주교라는 점은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은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그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교가 되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웃음)

주교 임명을 받고 베네딕도 수도원으로 피정을 갔는데, 피정이 끝날 무렵 ‘내가 너를 교황으로 뽑았느냐? 교황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구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보좌주교로 뽑았잖느냐. 본 주교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징징대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으면 안 도와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곱씹었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하느님이 뽑으셨으면 도와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평화와 안정을 얻었어요.

주교를 대신해 많은 신자들을 사목하는 신부님들 하나하나를 잘 돌보는 것이 제 임무라 생각합니다. 서울대교구 같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 신부님들이 열등감이랄까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이미 선물 받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신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많은 것을 받은 건데, 당신은 이미 존중받고 있고 존중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느끼게 해주어 우리 신자들에게 잘해 주도록 제가 다리를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묵상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함께 간다는
데 동감합니다.

단순한
도식인지
몰라도 행동은
너무 강하고
기도는
약합니다.

행동의
바탕이요
뿌리가
기도인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시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회 안에 있기에 분명히 이야기할 건 해야겠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는 우리밖에 나설 사람이 없었고, 목숨을 걸고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연대 측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복음에 근거를 둔 거냐. 아니면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한 것에 근거를 둔 거냐. 그런 성찰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사건의 연속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마음들이 너무 메마르고 사나워졌어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내 탓이요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제 깊은 곳은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부터 제대로 갖추도록 해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어떻게 간에 지금 말들이 사납고 거친게, 저는 내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차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고 지적해 주어야 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차원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한번쯤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자기성찰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죠. 그런 차원을 교회가 좀 더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oratio)와 묵상(contemplatio)과 행동(actio)이



근본적으로 함께 간다는 데 동감합니다. 단순한 도식인지 몰라도 행동은 너무 강하고 기도는 약합니다. 행동의 바탕이요 뿌리가 기도인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수도자나 성직자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현장 운동가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 넓은 차원에서 기도랄까 영성이랄까, 깊은 면에서 뿌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염경기도의 중요성을 저는 철저히 느끼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순교자들 가운데는 신부님 한번 만나지 못하고 순교한 분도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분들이 자유기도와 관상기도를 알았겠습니까. 조과만과, 매괴신공, 삼중기도 열심히 바치고, 바로 염경기도입니다. 최양업 신부님 아버지인 최경환 성인도 성질이 불같았는데 기도하면서 다스렸고, 버선코가 닳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차원을 많이 잃어버렸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격당했을 때 그분 입에서 나온 게 폴란드말로 된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정적 틀이라는 것이 무시되지만, 한 사람과 한 집단의 정체성과 그에게 힘을 주는 데 이런 기도가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정 문제의 해결도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옛날 구교우 가정처럼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매일 기도할 수는 없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안 되면 혼자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미국서 나온 통계를 보면 매주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사람은 50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했고, 매일 가정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천 몇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큰 어려움이나 풍파를 겪지 않고 어찌 보면 평탄하고 밋밋하게 살아왔어요.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가기 전부터 아웃이 사제의 길만을 생각했구요. 지나고 보면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큰 고민 없이 한 군데 진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길에서 나름으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니 행복한 거지요. 2011년 사제수품 25주년 은경축 때 책을 내면서, 받은 게 많으니 빚을 많이 졌다, 갚아야 한다고 썼더니 킬릭 주교가 되어버렸어요. (웃음)



올해 2월에는 크루즈 성지순례를 갔어요. 제 주보인 베네딕토 성인이 세셨던 몬테카시노에서 성인의 지하묘지에 들렀는데, 참배가 끝나는 시간이라 후다닥 내려가, '이제야 뵙습니다.' 하고 무슨 기도를 할까 하다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 영검의 두 뿔을 달라고 청한 게 생각났어요. 두 뿔을 청했다가는 고생할 것 같고 한 뿔만 청했는데, 그 뒤 5개월 만에 주교가 되었어요. '기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지나? 그랬더라면 반뿔만 청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카를 라너 신부님이 임종할 때 의식이 있으면 무슨 기도를 바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답했대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신앙생활의 초석이 되는 게 하느님 자비의 체험 같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남을 단죄하기 쉽고,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은총이겠죠. 그런 측면이 옛날 신부님과 신자들에게는 많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은 신자들이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큰아버지는 잘살고 우리 아버지는 착하기는 하셨지만 흔히 하는 말로 주변이 없는 분이셨어요. 큰집에게 무시당하는 게 옆에서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하느님께서 먹을 것 다 주셨는데 그러지 마."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내가 하느님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앞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차원,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된다

크리스천 생활 실천 그룹 꾸르실료 심윤식 주간에게 듣는다.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꾸르실료는 개인적으로 제게 매우 친숙한 단체입니다. 영국 유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형제가 열심히 참여했던 운동으로 자주 언급했던 탓에 익히 알고 있던 운동이지요. 지금 그 형제는 한국 귀국 후 예수회에 입회해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어느 덧 수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 다루는 꾸르실료는 때마침 11월 평협에서 개최한 평신도단체박람회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제16차 서울대교구 올트레아 기념미사(2013.10.3)

● 꾸르실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꾸르실료 운동의 정식 명칭은 '크리스천 생활의 꾸르실료 운동'입니다. 꾸르실료 운동은 교회의 운동이며, 교회의 사목 목표인 '세상의 복음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꾸르실료 운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꾸르실료 운동만의 독특한 '카리스마'와 '방법'으로 '세상의 복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꾸르실료는 스페인어로 '과정'을 뜻하는 'Curso'와 '짧다'는 의미의 접미사 'illo'의 합성어로 단기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꾸르실료가 스페인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 꾸르실료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19세기 스페인에는 '종교적 전통주의자'와 반성직자적 경향을 가진 '진보적 가톨릭 신자' 간에 벌어진 세 차례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있었던 마지막 내전은 본질적으로 좌우익 간의 혁명과 반혁명적 내전이었습니다.

좌익 세력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및 공산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고, 우익 쪽으로는 군대와 로마 가톨릭의 지지를 받는 전통적 보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내전은 강력한 '반(反)성직자 분위기'에서 시작됐으며, 내전 기간에 교구 사제와 신학생 4184명, 수도자 2365명, 수녀 283명 등 6832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

함한 7만2500명의 신자들이 살해됐습니다.

전통적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이 '비(非)그리스도화된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꾸르실료 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非)그리스도화된 세상을 '그리스도화된 세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 꾸르실료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1940년대 초, 비(非)그리스도화된 세상을 그리스도화된 세상, 즉 신앙으로 가득 찼던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려는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여, 산티아고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만명의 청년들을 국토 순례 대행진(도보성지순례)에 참가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기성세대 대신 세대에 적게 물든 청년들의 신앙 쇄신을 통해 비(非)그리스도화된 세상을 그리스도화된 세상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10만명의 청년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이나시오 영신수련'의 내용과 방법을 도입한 7일 간의 피정, '꾸르실료'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7일간의 일정은 참가자들의 제반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1943년부터 3박4일로 조정하게 됩니다.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꾸르실료를 교회 운동으로 발전·지속시키자는 의견 일치를 봤고, 당시 마요르카 교구장이었던 우안 에르바스 주교가 평신도 운동이었던 꾸르실료를 교계제도 안으로 흡수해 교회의 운동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1949년 1월 7일에 산 오노라토 수도원에서 꾸르실료가 실시됐는데, 이때의 꾸르실료를 공식적으로 세계 1차 꾸르실료라 부릅니다. 성직자 주도 중심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본래의 모습인 평신도운동으로 전환됐으며,

현재는 평신도와 성직자가 협력하는 신심운동으로 정착됐습니다.

개인들을
크리스천 핵심
그룹으로
육성해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언제 꾸르실료 운동이 도입됐나요?

1966년쯤 주한평화봉사단 단장으로 서울에 머물러 있던 미국인 케빈 오도넬과 사업가로서 필리핀의 꾸르실료 운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던 에드문도 카이모를 통해 우리나라에 꾸르실료 운동이 도입됩니다. 그분들은 당시 해화동 본당 유수철 주임신부와 청파동 본당 김정수 주임신부 등을 만나 꾸르실료 운동의 참 뜻을 전합니다.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1967년 5월 4일 한국 최초의 꾸르실료가 필리핀 봉사자들에 의해 서울 성수동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서울대교구 남성 제1~2차 꾸르실료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1967년 8월 24일 시작된 제3차 꾸르실료부터 우리말로 꾸르실료가 실시됩니다. 올해로 꾸르실료 도입 48주년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약 19만명이 꾸르실료를 체험했고, 서울대교구에서만 약 3만4000명이 체험했습니다.

● 꾸르실료 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꾸르실료 운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살도록 도움을 주고, 그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개인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완수하도록 해 그들을 '크리스천 핵심 그룹'으로 육성해 누룩처럼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입니다.



2016 봉사자 연수(2015.10.31~11.1)

● 꾸르실료 운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로의 회심이나 세상 복음화를 위한 활동을 할 때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오 복음 7장 7절의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삶의 자리)의 선택과 침투: 복음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경을 찾아내고, 공동체를 통해 그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2.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발견과 선발: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환경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그리스도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3. 후보자들의 준비: 선발된 후보자들이 하느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함으로써 꾸르실료에 임할 준비를 하게 하는 한편, 기꺼이 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 본당에 '울프레야'라는 단체가 있는데 꾸르실료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본당에 있는 '울프레야'는 본당 꾸르실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울프레야는 스페인어로 '앞으로 전진'이라는 뜻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할 때 종종 쓰는 말입니다. 정기적인 울프레야를 통해 꾸르실료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개인의 신앙채신과 환경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더 전진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직장, 지구, 교구, 전국, 세계를 단위로 하는 '울프레야'가 있습니다.

●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가 있던데요?

2012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보내며 실천적인 세상 복음화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사업입니다.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 또는 아직 공산주의의 통치 아래 있는 중국의 신학생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사제로 양성해 본국에서 사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국 하얼빈교구 신학생 2명이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베트남 예비신학생 2명이 어학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꾸르실료를 체험한 사람들이 내는 회비를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 꾸르실료 사무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운동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꾸르실료는 '꾸르실료 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꾸르실료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 교구에 꾸르실료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군종교구를 제외한 15개 교구에서 꾸르실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교구가 회장교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꾸르실료 운동의 세계본부는 OMCC라고 하고, 아시아태평양그룹, 유럽그룹, 북아메리카 그룹, 남아메리카 그룹의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4개 그룹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현재 포르투갈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장

사목교서로 본 2016년 한국 교회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전국 교구장 주교들은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을 맞아 2016년 사목교서를 발표했다. 사목교서는 한 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목 청사진이다. 교구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목 지표들을 담고 있어 각 교구가 처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나침반과도 같다.

2016년 전국 교구 사목교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자비의 해’다.

교구장들은 사목교서에서 12월 8일 시작되는 자비의 해 선포 배경과 취지를 밝히고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고 체험한 자비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함께하고 있다.

자비는 오늘날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비에 대한 묵상과 체험을 바탕으로 주위에 자비를 전할 수 있는 2016년 자비의 해가 되도록 하자.



자비의 회년 엠블렘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교회의 가르침은 새로운 복음화의 나침반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1티모 4,13)

저는 한국 천주교회가 ‘허약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신앙의 강화를 위해 다섯 가지 방안을 표어에 담았습니다. 곧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그것입니다.

올해는 그 세 번째 해로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

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신앙인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친교 안에서 믿고 희망하며 사랑하며 삽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대화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요한 10,16)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목자를 세우시어 당신의 자녀들이 악의 세력에 현혹되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만민에게 세례를 베풀고 당신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마태 28,19-20 참조). 이 명령은 사도들의 후

계자인 교황과 주교들에게 맡겨져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입니다. 신경에는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증거한 믿음, 오랫동안 교회가 다져온 정통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신경과 더불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나침반처럼 항상 신앙 여정의 길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마태 7,24-25 참조). 슬기로운 사람은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체험할 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자라난 신앙을 이제 ‘교회의 가르침’으로 더욱 다져가는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가장으로 모신 큰 집안의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큰 집안인 교회를 구성하는 기초는 바로 교우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는 바로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병폐들 중 많은 부분이 가정의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열의와 보다 치열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매우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젊은 이들이 혼인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 연령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붕괴하는 가운데 가족 간의 소통 장애가 심해지고, 1인가구, 조손가정, 이혼하는 가정 등 깨어진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이와 같은 가정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로써(창세 1,27 참조)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을 취하실 때에도 가정의 일원이 되시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심으로써 성가정의 모범을 남기셨고(루카 2,51 참조), 첫 기적을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으키셨으며(요한 2,1-12 참조), 신자들 간의 혼인을 성사로 제정하셨습니다(마르 10,1-12 참조). 바오로 사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시어 거룩하게 하신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큰 신비(에페 5,21-33 참조)이므로, 가정은 사람에게 지워진 굴레가 아니라 그를 고양하고 완성하는 은총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믿음의 보화는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마태 5,15 참조) 세상을 비춤으로써 기쁨과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주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께서 보여주신 이 기쁨과 희망이 지금 우리 가정들과 세상에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회년’을 맞아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자신이 바로 가정 복음화의 주역임을 깨닫고 성가정을 이루는 일에 끈기 있게 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가정을 이루는 이 사명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족들을 위해, 또 가족과 함께 꾸준히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가정생활 안에 그분을 모셔 들일 때 그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운 교회’(2015년 7월 6일 에콰도르 사목방문 중)가 됩니다.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

본당의 해 I

- 세대별 활성화 및 일치를 통한 본당 복음화

우리 교구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의 회복과 강화라는 사목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첫 자리인 ‘가정의 복음화’를 비전 실현의 출발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정은 모든 인간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키우는 가장 기초적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정의 회복이야말로 인간성 회복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거울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거울이 되어주신 교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2년 발표한 비전에 따라 ‘공동체성 회복과 강화’의 두 번째 단계로 본당활성화를 위해 ‘본당의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당은 교회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으로서(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30항) 하느님의 친교가 실현되며(9항),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탁월한 장소(4항)입니다. 특별히 본당은 신앙인들의 믿음의 삶 전체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본당의 활성화 없이 교회의 성장은 결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당은 공동체들의 공동체이며,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이며, 지속적인 선교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28). 또한 본당 공동체는 구성원들을 통하여 하느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일치 기쁨, 하느님 안에서의 평화를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당활성화에 있어 구성원들의 일치와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당활성화는 전적으로 본당신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문헌에서 “공동체의 성사적 길잡이인 사제가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찬의 전례와 설교, 신자지도 등 “날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본당 사목구를 진정한 신자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2항)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당 사목자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활동의 목적이 “교회의 사명인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에 이바지한다.”는(현대의 사제 양성 70) 것임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복음의 기쁨’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쇄신을 말씀하시면서 사목자들의 쇄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목적 열정과 성덕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목자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사목의 새로운 등대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로 초대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복음화를 향한 여정에 다함께 기쁘게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삼위일체의 친교가 체험되는 본당,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신앙인들은 2016년 한해를 특별 성년으로 지내면서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의 당부대로, 우리 자신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이들을 같은 너그

루움과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고 대함으로써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로마 8,12).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분께 빛을 지고 있다는 말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1고린 4,7).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감안하면서, ‘자비의 얼굴’을 읽어야 합니다.

자비는 ‘복음의 뛰는 심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멈추면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표현하는 12항은 새로운 복음화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비는 원칙도, 객관적 진리도, 기준도 없이 덮어놓고 ‘좋다’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오냐, 오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오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보태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는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는 정의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자비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자비는 정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대로, ‘자비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자비는 모든 것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자비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의에만 머무르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고, 단지 율법 준수만 요구하는 인간과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21항).

하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누구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돌아올 때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백번 일흔 번”, 곧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잘못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어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마태 18,22-34)를 들려 주셨습니다.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

하느님 자비의 얼굴인 그리스도인의 증인

‘소통과 참여와 쇄신’은 오늘날 교회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귀중한 복음적 가치들로서,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교구의 중요한 신학적 사목적 원리가 됩니다.

‘소통, 참여, 쇄신’, 이 세 가지 복음적 가치들은 서로 구별되면서 또한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소통’하시고, 그분을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친교와 본성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를 통해 하느님의 풍성한 자비를 입고 ‘새 인간’이 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끊임 없이 새로워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그리스도께 파견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은 세례를 받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삼중직무, 곧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신부인 교회는 바로 그 자비를 언제나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직무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자비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비의 영약으로 형제들을 돌보도록 세상에 파견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께 받은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이자, 형제자매들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근본 법칙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명령을 받아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 선포 활동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자비의 활동’입니다.

부산교구 황철수 주교

본당 재탄생을 향한 새 복음화
-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해’

우리 교구는 2013년부터 본당공동체의 쇄신과 성숙을 위해 ‘본당 재탄생을 향한 새 복음화’라는 5년간의 여정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그 네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본당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미화나 시설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당의 내용은 웅장한 건물에 있다기보다는 형제애로 한마음을 이룬 ‘신앙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당 재탄생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의 재탄생입니다. 물론 가시적인 정비와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외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공동체 개개인의 신앙적 삶을 증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당 구성원의 참된 쇄신과 활력이 본당 재탄생의 요체임을 다시금 되새겨보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우리의 신앙적 삶에 복음적 문화와 가치관을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마음 속 어두움, 독서로 밝히자.’는 표어 아래 진행된 신심서적 읽기는 잡다한 정보의 바다를 헤매는 우리에게 알찬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복음적 문화를 바탕으로 본당공동체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초공동체는 단순히 구역 ‘소공동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본당에서 신앙을 근간으로 한 모든 형태의 모임과 단체와 그룹 등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기초공동체 복음화는 본당 구성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양한 단체와 모임에서 신앙적 유대를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 ‘소공동체’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도 포함됩니다.

신앙을 근간으로 한 본당의 모든 모임과 단체와 그룹은 영적 결속과 친교를 실현하는 훌륭한 자리이며 공동체의 활력이 드러나는 표지입니다.

올 해 본당 구성원들은 각자의 고유한 은사에 따라, 수동적인 참관자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참여자로 다양한 단체와 모임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적 친교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고 그리스도인

의 정체성을 재확립함으로써 본당 재탄생에 한몫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으며
-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자비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는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와 연민,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소명을 받았기에, 그동안 이 책임을 실천하는 데에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는 것이 희년 선포의 취지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느님의 고유한 본질이며 그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전능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 동안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부정부패에서 멀어지며, 돈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공동선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대전교구 유흥식 주교

말씀과 성사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해

하느님 자비의 역사의 정점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는 사랑의 새 계명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태 28,19)는 선교의 사명을 남겨 주셨습니다.

물질주의의 유혹이 거세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복음 정신으로 깨어 있는 자기 쇄신이 필요합니다.

2016년 사목목표를 ‘전례와 성사’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가톨릭 신앙은 성사생활로 표현됩니다. 그중에서도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성사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희년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로운 해로서(레위 25,8-22; 루카 4,16-22 참조), 그 중심에는 화해와 용서가 있습니다.

마산교구 안명옥 주교

교구 설정 50주년
- 기쁨과 은총의 해를 맞이하며

희년은 기쁨과 축복의 해입니다.(레위 25,8-22 참조) 모든 빛이 탕감되며 빼앗겼거나 팔린 땅은 모두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오고, 종노릇하던 노예는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의 정신은 해방과 자유로 수렴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찾아 해매던 두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마태 28,10)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당부한 ‘갈릴래아’는 사도들이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큰 뜻을 품고 출발하였던 그곳, 본래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갈릴래아는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지, 우리의 첫 마음이 머물러 있는 갈릴래아는 어디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주님을 다시 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기쁨과 해방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아직 우리 안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 제2차 넷째 해
- 가장 작은 이를 찾아가는 교구 공동체의 해

교회 공동체의 자비로운 모습은 무엇보다도 교회 스스로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체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는 때는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며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방황한 아들이 돌아와 선뜻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루카 15,11-32 참조). 우리들이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서,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복음의 기쁨, 47항 참조).

교회가 자비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앞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찾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교회헌장, 8항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마르 1,38)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마태 18,12)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친구와 부유한 이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자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48항). 이러한 이들에게 다가가 베푸는 사랑은 다름 아닌 주님이신 예수님께 베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나그네, 헐벗은 이들, 병든 이들, 감옥에 있는 이들인 ‘가장 작은 이들’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동교구 권혁주 주교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느님의 자비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자비의 하느님에 대립되는 듯, 자비라는 이념 자체를 생활에서 배제하고 인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비’라는 말과 개념을 매우 거북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성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낮춰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는 그분께서 오로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재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애틍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유한 배려와 너그러운 용서가 넘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사랑입니다.”(『자비의 얼굴』 6항) 복음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가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의 희년을 맞이하여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려 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자비를 느끼며 우리도 나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려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복음의 뛰는 심장’(『자비의 얼굴』 12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스스로 자비를 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열정과 사목활동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거듭 알리고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자비를 배우고 익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자비가 그들 마음속을 파고들도록 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내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의정부교구 이기현 주교

우리가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느님의 본질이며, 교회 생활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목활동은 자비함과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6항, 10항) 교황님은 이 특별 성년에 교회가 성당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요청하시며 다섯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하십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내야 합니다.

둘째,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의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셋째, 교회가 지정한 순례지를 순례하고,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세상에서 비참한 조건에 있고, 존엄을 박탈당한 형제자매들의 상처를 돌보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외침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다섯째, 육체적 영적 자비의 활동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여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비의 특별 성년은 성년 선포 칙서 『자비의 얼굴』과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때’라는 점을 생각하며 보내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9항).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소비지향적 생활양식과 자기중심적 생활태도를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을 통해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다하고, 진심어린 작은 친절을 베풀며 더불어 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건설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생태적 회개’를 언급하며, 이를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모두에서 실천하도록 요청합니다.

교황님은 “자비는 교회 생활의 토대”라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자비와 연민이 가득 찬 사랑에 달려 있다.”(자비의 얼굴, 10항)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돌보아 주라는 부르심, 그들의 상처에 위로의 기름을 부어 아픔을 덜어 주고 자비로 감싸주며 연대와 세심한 배려로 치유하여 주라는 부르심(자비의 얼굴, 15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태적 회개’의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군중교구 유수일 주교

‘축복의 형제애’

교구의 사목표어를 ‘축복의 형제애’로 정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형제애가 주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형제애’는 참으로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형제애는 그만큼 더 커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형제애 실천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지니는 이 특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형제애가 두 차원, 곧 적극적 차원과 소극적 차원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 차원에서는 특히 세 가지 요소, 곧 친절, 겸손, 예의가 중요하고, 소극적 차원에서는 특히 이해심, 인내심, 용서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형제애의 적극적 차원인 친절, 겸손, 예의에 대해 묵상하고, 이어서 소극적 요소인 이해심, 인내심, 용서하는 자세에 대해 간단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형제애의 소극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들, 특히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을 인내해 주려는 자세,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는 자세도 역시 형제애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해와 인내와 용서의 축복은 참으로 큼니다.

형제애는, 인간 완성의 길이자 개인, 사회, 국가, 세계 평화의 길이요 복음전파의 지극히 효과적인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형제애야말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형제애를 보이시면서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요한 13,17)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행복 선언은 바로 형제애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제32회 가톨릭 대상 시상식

사랑 부문 신원한, 문화 부문 김정식,
정의평화 부문 이수용

정리
신동수 편집위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 회장 권길중)는 지난 11월 6일, 제32회 가톨릭대상 최종 심사회의를 열어 사랑 부문에 신원한 교수, 문화 부문에 가수 김정식, 정의평화 부문에 환경운동가 이수용 씨를 각각 선정하고, 12월 10일 가톨릭회관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사랑 부문을 수상한 신원한 교수는 25년간 가난한 환우를 위해 의료 봉사를 해왔는데, 1983년부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부터 차례로 거쳐 간 병원마다 의료 봉사단을 조직하고 국내 봉사는 물론 캄보디아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해외에 의료 봉사를 펼쳤다. 또한 1990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인 성가

복지병원이 개원하는 동시에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술을 펼치고 있는데 25년 동안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다. 그의 항구한 열정과 진심 어린 봉사 등이 사랑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됐다.

문화 부문 수상자 가수 김정식 씨는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약속』이란 곡으로 은상을 받았지만 함께 무대에 섰던 가수 노사연, 배철수, 심수봉, 임백천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생활성가라는 장르를 가톨릭교회에 전하는 데에 일생을 보냈고, 1987년 반예문 신부와 함께 듣지 못하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보청기' 자선음반인 『나의 친구에게』를 시작으로 생활성가 1집 『그대 잊지 않으리』 등 30여 개의 음반을 제작했고, 교회 내외를 가리지 않고 2,500회 이상의 공연과 피정, 강연을 이어갔다.

특히 그가 만든 생활성가는 물론 악보집 등의 발간으로 개신교 복음 성가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

던 한국 가톨릭 성음악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의평화 부문 수상자 이수용 선생은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환경과 생태, 환경문화운동을 뒷바라지하며 묵묵히 살아온 게 평가를 받았다. 현안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의 성격상 앞에 나서 외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수용 씨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문화예술인을 모으고, 사진을 찍고, 책을 만들었으며 불편함과 물욕 가득한 우리 시대에 저항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표현해 왔다. 20년 넘게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산에 관한 책만 출판하는 출판사를 운영해 왔고, 늘 먼저 도와주고 뒷받침하는 역할로 많은 활동가들의 존경을 받아 왔다.

● 수상자들의 소감 ●

[사랑부문 - 신원한 씨]

저는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니 결혼식 주례를 신부님이 예식장에 오셔서 해 주셨던 것이 인연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생각해 온 것이, 어릴 적 신발을 수리해 주던 '신기루 장수'가 있었는데 신발을 만들다가 남은 자투리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가난한 이를 위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자투리를 가지고 돕는 것이 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료봉사를 조직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봉사를 함께 하는 이들이 근무할 때와 달리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할 때도 좀 열심히 하라."고 농담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더욱 즐겁고 착해지는 것은 '받는 것 보다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우연한 기회에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와 후원금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상금도 전액 성가복지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좋아진 환경이지만 1990년대 대한민국 유일한 무료병원이 성가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주로 외국인 환자, 행려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이야말로 천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을 받은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우연한 기회에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와 후원금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상금도 전액 성가복지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좋아진 환경이지만 1990년대 대한민국 유일한 무료병원이 성가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주로 외국인 환자, 행려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이야말로 천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을 받은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부문 - 김정식 씨]

제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가난했고 경제성장을 담보로 독재정치가 정당화되던 시절이었기에 늘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 가담했었고 가난과 억압에 허덕이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은 고스란히 내면의 고통이 되었고, 미처 삭이지 못한 고통은 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늘 내 곁에 책과 음악이 있었고 틈만 나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으로 달랬습니다. 13살은 헤세의 시 한 편에서 얻은 치유와 샤를르 드 푸코의 전기를 읽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600여 편의 노래는 헤세에 의해 치유된 이후 떠오른 시, 노래와 항상 내 곁에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과의 대화를 담은 찬미의 노래입니다. 음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서 이바지 해 온 공로로 평협에서 받은 이 상의 또 하나의 자량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앞으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격려와 위로로 삼겠습니다.

내 노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특히 염수정 추기경님과 고 김수환 추기경님, 프랑스 생드니 교구의 오영진 올리비에 대주교님, 성소를 선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많은 수도자, 성직자, 그리고 많은 평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평화 부문 - 이수용 씨]

제가 가톨릭대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상이 30여 년이나 지속되었다는 데 더욱 놀랍고 찬사를 드립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제가 과연 그만한 일을 해 왔는가 생각하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도시민으로 출판업을 천직으로 삼고 산과 자연환경에 관한 책을 출간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의 녹색 허파인 북한산 국립공원을 두 동강 내는 우이령길 확대 포장 사업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산과 자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당시 20개 국립공원 중 하나로 이는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자연유산이기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큰소리를 낸 것이 자연보호 활동에 몸 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개발 논리와 인간의 간섭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환경과 참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평정심으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시상식 후 수상자들이 염수정 추기경, 평협 관계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1982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 질서의 개선에 이바지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선전하여 시상하고자 제정된 가톨릭 대상은 매년 사랑 부문, 문화 부문, 정의평화 부문 등 3개 부문에 걸쳐 뛰어난 활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열정을 다해 온 인사들을 종파를 가리지 않고 선정해 시상해 왔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길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기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리라 믿는다.”며 “오늘 이분들의 수상을 통해 다른 분들도 모두 자기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선물하고, 이분들의 삶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은 “가톨릭 대상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환기시켜 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 세상의 질서가 복음화되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12월 8일 시작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넘치도록 함께 더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격려했다. 



평신도 연구

‘평신도’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 존재인가?

정찬남 모니카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平信徒(Laity; Lay People)는 ‘백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laos에 근거하며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평신도’라는 단어보다 ‘신자’라는 낱말이 더 익숙하다. ‘평신도’라는 말은 3세기에 성 클레멘스가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평신도’는 평신자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평신자는 ‘교회의 능동적 구성원으로서, 세례성사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되고, 성직자와 더불어 한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는 자들이다’이다. 또, 전례사전에 의하면 ‘평신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 평신도는 그리스도인 실존의 특수한 형태이며 의무와 특권, 존엄성과 보장된 영원한 보상을 지닌 고유한 소명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평신도’에게는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 평신도는 하느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여러 분야 및 책무를 학습하고 수련과 훈련을 하여야 한다. 평신도가 ‘평신도’답게 살기 위하여 ‘평신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학습하며 그리스도의 체질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다 떠나는 세상살이를 위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학습을 하며 살고 있다.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인데 하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인 평신도의 삶이라? 무늬만이 아닌 하느님 자녀의 체질로 변환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각오, 그리고 실천력을 길러야 한다.

핵심적인 것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체계적인 평신도를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필수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짧은 예비신자 생활 동안의 체험으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원만히 수행하기란 나약하

기 이를 데 없고 냉담자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은 이유가 된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를 정하여 연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그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영의 세계로 진입한 신앙인 평신도들은 체계적인 교회의 공교육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분야를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영적생활의 기초를 위하여 국민 기초교육처럼 단계적인 교육이 별도로 마련되진 않았지만 교회 내외에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학습을 하며 훈련이 없어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편식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정과 교육, 단체 활동들, 영적독서, 성서공부, 통신교리, 통신신학 등 요즈음 참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는 장이 열려있다.

개인으로서의 평신도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가지게 된다. 평신도란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숙고하며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앙인으로 잘 살아보기 위한 단체 입회 등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는 존재이다.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무엇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신앙인은 무엇을 꼭 해야만 하는지, 신앙인으로서의 의무 사항과 책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이 바른 길을 모색하고 정진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약간만 빈

틈이 생겨도 무너지기 쉬운 것이 세상살이이며 보다 쉬이 무너지기 쉬운 것이 신앙살이라는 생각이 든다.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기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는 숙제 중의 숙제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기적이나 특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고민하고 배우고 익혀서 ‘평신도’다운 평신도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은 세상일에 종사하면서 그것을 하느님으로의 질서를 세워 줌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교회 헌장 4장). 평신도는 능동적 구성원이다.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존재와 활동과 희생을 바쳐, 하느님께 찬미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질서가 복음의 원칙대로 회복되도록 모든 사도직에 참여한다.

특히 교회의 재정 문제는 본질적으로 평신도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적 생활을 해야 한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에서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화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야 한다(골로 1,28).

평신도들의 직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행해야 할 특수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평신도 에세이

나의 기도생활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류주희 클로틸다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네 이름이 뭐냐?"

개신교 때 '하나님'을 만난 이적은 아직도 생생하다. 목련이 핀 봄날 어느 오후 양재동 온누리 교회를 무작정 처음 찾아가던 날 가로수 저 멀리에 보였던 예수님 형상이 인상적이었다. 그날 밤 하용조 목사님이 꿈에 "네 이름이 뭐냐?"고 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매일 가위 놀리던 침대 왼쪽 자리에 하늘 높이 솟아 나를 내려다보는 예수님 형상은 내가 본 온누리교회 벽화 그대로였다. 온천지가 환하게 빛났고 찬란한 빛이 죽 늘어 쳐켜이 퍼지는 영롱한 그 빛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눈부심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빛이었다. 그맘때 삶이 힘들어 죽음을 생각했는데 내게 다가오시는 거 같았다. 내 평생 그 하나님의 모습을 꿈에서 또 볼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 뭐든 내가 가진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나라는 인간이 감사를 알다니 스스로 놀라웠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은 꼭 빠져 있었지만 하루 종일 찬양이 맴돌아 은혜로웠던 적도 있었다. 개신교 시절의 핵심은 '꼭조 있는 기도'인 찬양의 은혜였다.

'내 탓이오.'가 좋아요

주님과 만난 첫사랑의 감격과 하느님에 대한 간절한 감사는 어느 새 잊고 신앙을 따지고 비교했다. 2005년부터 다녔던 사랑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한 교회라는 자부심은 갈등으로 변질됐고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하면서 평소 "내 탓이오가 좋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가톨릭으로 회심하는 계기가 됐다.

가족 모두 개신교 신자이고 같은 하느님인데 옮겨야 할까 망설이기도 했다. 동네 성당을 기웃대다 명동성당을 제 발로 찾았고 그레고리안 성가에 눈물을 흘렸다. 교리라도 듣자 싶어 명동성당 6월반에 등록했지만 갈피를 잡지 못했다. 싸늘했고 봉사자들도 정이 없어 보였다. 다들 핵심은 세례였다. 가톨릭을 그저 알고 싶다는 사람은 없었다. 세례가 나에겐 숙제였다. 연옥이라든지 무염시태라든지 성모마리아에 대해 풀어야 할 것이 많았다.

작은 신앙

지난해 12월 14일 나는 가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변한 게 없다. 성당에만 오면 거룩한 체하며 미사를 드리고 성당을 나오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음이 좋을 때 감사하다가도 슬럼프에 빠

지면 기도하지 않고 해매곤 한다. 마음 밭에 쓴 뿌리가 많아서 제 들보는 접고 남의 티끌만 보인다. 행함 없이 말로만 '내탓이오' 하는 껍데기 액세서리 신앙 같다. 어찌면 앞으로도 '여기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교회 주변만 서성이다 끝날지도 모르겠다.

욕심껏 '주세요'도 못하면서 결국 내 맘대로 하고는 '하느님~' 해놓고 할 말이 없을 때면 마음에도 없는 기도만 맴돈다.

'예비신자가 뭘 알아'

처음엔 미사가 힘들었다. 개신교는 준비 찬양이 은혜로운데 멀뚱하다 미사가 시작되고 내용도 어려웠다. 받아들이는 예식에서 눈물이 났지만 괜히 왔나 싶은 적이 많았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미사통상문을 배우는 데 '합당치 않사오나'에서 울컥 눈물이 나면서 먹먹했다. 가톨릭 성가를 배울 때 특히 '주님의 기도'가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 미사 때마다 눈물의 은총이 점점 스미기도 했다. 세례 받기 전 9일 기도를 할 때는 마지막 날의 성가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첫 고해의 추억

"하느님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예비자반 동기들과 친교에 힘입어 세례를 받았습시다. 지금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예비자과정을 서성댈 거 같습시다." 첫 고해 시작부터 목이 메어 떨어왔다. "세례를 받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지 않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않고 미사도 빠졌습시다.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울먹이며 이어가는데 눈물이 터져 나와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 정도였다.

신부님이 제지해 주셨다. '이 밖에 고하지 못한 죄도 다 용서하여 주소서' 말씀이 끝나고도 나

는 자제가 안 돼 멈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었다. 보속으로 성모송 10번을 주셨다. 고해가 뭐라고 몸살이 났을까. 다음 날 나는 심하게 아파 드러누웠다. 흰 눈이 소복히 온천지에 쌓인 꿈도 꾸었다. 나의 첫 고해는 힘없이 끝났다.

'묵주기도는 힘이 있다'

세례 후 묵주기도를 처음 바치던 날, 그 가슴 울리는 느낌을 뭐라 설명할 방법은 없다. 스스로도 놀라웠다. 매일 5단씩 하다가 밀린 숙제하듯 기계적인 암송에 그쳐 곧 그만두었지만 지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의 은혜로 9일씩 기도를 시작해 매일 이어오고는 있다. 알맹이 없는 암송일 때가 더 많다. 매일이나 정성껏 한 번이나를 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기도지향도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기도는 힘이 있다.

'주님 제가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당 화장실에 붙어있는 문구가 매주 눈에 띈다. 어떤 성경 말씀보다 나에겐 약이 된다. 성당에 가면서도 싸우고 미워하고 내 안에 '화'가 많다면 무슨 소용인가.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고 싶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나에겐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만 기도와 묵상 중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격적으로도 면면이 성장해 변화한 나로 거듭나고 싶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천국을 꿈꾸지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오늘을 천국같이 사는 게 하늘 천국보다 중요한지도 모른다. 이 세상 모든 게 천국이기를 소망한다. 세상 천국은 하늘 천국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같은 길로 나있다. 



평신도 에세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

김상경 예비신자 의정부교구 백석동성당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일깨워 주신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적과 같은 축복인지 모르겠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등 마는 등 안방 문을 열어 본다. 아무도 없다. 덩그러니 적막한 집안 어디선가 한 쪽 구석에서 웅얼웅얼 소리가 들린다. 드르륵! 작은 방 문을 열면 거기 하얀 한복차림의 어머니가 방안에 앉아있다. 감싸 쥐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흔들의자에 앉은 것처럼 앞뒤로 몸을 흔들며 무엇인가 중얼중얼 하고 있다. 꼬옥 감은 눈엔 눈물 몇 방울쯤 흘렸을까.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뚫고 가르마 탄 쪽진 머리에 단정하게 내려앉고 있다.

그 시절 어린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곧잘 마주치곤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나는 방 문을 열고 우두커니 선 채 어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나의 인기척을 느꼈을 터인데도 10여 분이나 더 지난 다음 마치 긴 문장의 마침표를 찍듯이 두 손을 질끈 이마에 짚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는 눈을 떴다.

교회를 다녔던 어머니 덕분에 나는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액자 속에서 기도하던 사무엘의 머리 위에 쓰인 ‘오늘도 무사히’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만 알았다. 주일이면 깨끗이 세수를 시키고 머리에 물을 묻혀 2대8

가르마로 빗어주며 연보돈 30원을 챙겨 주셨다.

“20원은 연보하고 10원은 까먹어라.”

처음엔 10원만 연보하고 20원을 과자 사먹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점차 20원 연보하고 10원을 용돈으로 쓰다 나중엔 30원을 전부 현금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잘했다며 과자 사먹을 돈 20원을 더 챙겨 주시곤 했다.

열 살 무렵 여름 방학 때였다. 뒷마당에서 커다란 고무 다라이(대야)에 물을 떠 놓고 물놀이를 즐기다가 평상에 누워 뒹굴뒹굴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눈부시게 하얀 뭉게구름이 뭉글뭉글 피어오르며 여러 가지 사물의 모습과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신기하고도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솜사탕 같기도 하고 솜이불 같기도 했던 구름을 바라보며 마치 내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늘엔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지, 저 구름 위에 계시니까? 저 위에서 날 보고 있을까? 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마치 구름 위에서 꼭 하고 예수님이 얼굴을 내밀 것만 같은 상상을 하며 혼자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는지, 아님 조금 더 전인지 잘 모르겠다. 한 쪽에서 구름이 뭉글

뭉글 피어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굵실굵실 거리며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이윽고 나는 웬지 어리지만 정갈하고 더욱 깨끗해진 마음 상태가 되어 중얼거렸다.

“아! 예수님. 하늘의 구름 속에서 홀연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양들과 함께 나타나신 것이다. 많은 양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한 어린양을 안고 있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의 품안에 안겨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환한 신비감에 휩싸여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할 것이란 약속을 받았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동화 같기만 하던 어린 시절 나날들이 아스라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어머니가 흘리신 슬픈 기도의 눈물 덕분에 있었을까? 어린 내게 구름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신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을까? 용케도 내 지나온 날들은 수많은 좌절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 갈라자로 점철되었어도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다. 누군들 삶 속에 시련의 가시밭길을 지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 어쩌면 내가 지나온 길은 내게만 무겁고 힘든 짐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때는 더없이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이제와 돌이켜보니 견딜 만한 고통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한참 부족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일깨워 주신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적과 같은 축복인지 모르겠다.

삶에 지치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 한동안 기도를 잊고 살았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밀쳐 두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를 밀쳐두고 산 세월 동안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였는가? 당연히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자적 해석 말고 다른 점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저 바라건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에 슈퍼맨처럼 나타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미하며 평안과 행복을 얻고 싶을 뿐이다.

흔들의자에 앉은 양 몸을 흔들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는 늘 길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주의 자녀들을 늘 주님 품안에 품어 주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가게 하소서.”





평신도 에세이

나의 삶, 나의 신앙

고계연 베드로 서울대교구 가락동성당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말처럼 이것 또한 제가 이겨내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 의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2015년의 끝자락에서 제 삶의 보파리 한편을 풀어봅니다. 50대 중반으로 접어든 부족하고 나약한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작고도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껏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대과를 범하지 않았음에 안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쓴 덕분일 테지요. 믿음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바탕은 기도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돌이켜 보면 제가 시련과 곤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 하소연했고 평온한 일상 틈에 기도하곤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보다는 애원의 기도가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팔순을 맞이하신 저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칠형제가 가톨릭에 입문하여 잠시 쉬고 있는 넷째 동생을 빼곤 모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도 어머니 덕분입니다. 십대 후반에 가까운 동네로 시집 오셔서 엄한 시아버지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와 힘든 농사를 마다하지 않은 어머니. 여느 여염집 아낙네들처럼 일신의 단장은 꿈도 못 꿀 호사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주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된 것은 병약한 시어머니의 병 구완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니께서 강릉 갈바리 병원 신세를 진 게 가톨릭으로 나아간 시작이었죠. 할머니를 필두로 어머니가 양양성당에서 입교를 하고 일곱 아들이 차례차례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엔 동네에서 무당을 불러다 굿판을 벌이는 일이 흔히 있었지만 효과가 있을 리 만무했죠. “아버님, 이젠 굿 따위 미신은 버리고 하느님을 믿고 살아야겠어요.” 엄한 시부를 설득한 것도, 또한 완고했던 조부가 쾌히 승락한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장성한 아들들에게 선한 마음과 바른 행동을 강조하시며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입버릇처럼 이르십니다. 신앙에 삼덕을 몸소 실천하시며 이른 새벽마다 묵주기도를 바치십니다. 겨울철 농한기엔 신심서적을 소리내 읽으시며 하느님의 말씀을 체득하시니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물 일곱에 제게 시집 온 아내는 기실 병약했고 결혼생활 내내 병마(뇌혈관 질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혼 전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병증을 이유로 이별을 통고했을 때 저는 그녀를 모질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런 심정과 믿음이 강했습니다. 학창시절 교회를 다녔던 그녀는 명동

성당에서 교리를 받고 마리아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성당에서 혼배를 했습니다. 아내는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한양대 병원 신경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됐고 둘째를 출산한 뒤에도 시련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 같은 크나큰 시련을 자꾸 주십니까?” 울부짖기도 하고 항변도 해봤습니다. “사람은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숨질 수도 있으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저를 위로하는 신경과 주치의의 그 말이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내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서너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나긴 병상에서의 투병으로 등창이 생기고 폐렴 합병증으로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되찾고 말문이 트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은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퇴원하면 약간의 마비와 어눌한 말투 속에서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즐거이 미사 참례를 했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병마가 덮쳤을 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출혈 과다로 뇌수술을 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기약 없는 투병과 간병이 다시 시작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주님, 이 마리아를 어여뻐 여기시어 움짱달짝 못하는 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인의 미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서는 아내를 당신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그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올 한 해는 제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지난 6월 24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 아들 브루노에게 믿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토익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은 그날 오후 고교 동창생과 함께 공부하다가 반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고

한강에 나갔습니다. 바람을 쐬러 간 것인데 동행했던 친구가 무슨 연유인지 갑작스레 한강에 뛰어 들었고, 다급했던 순간에 아들은 119에 긴급구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 도착을 기다리지 못한 채 물에 뛰어들어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친구는 가까스로 구조되고 아들은 중간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제가 만난 것은 아들의 싸늘한 주검뿐이었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또 안겨주십니까? 스물네 살 못다된 청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며 절규했습니다.

아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목도하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나의 기도가 부족한 걸까?” 슬하게 자문해봤습니다. 평소에 강하게 키운답시고 사랑으로 따스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막급이었습니다. 고3 때 엄마를 잃은 아픔을 딛고, 대학 1학년 마치고 힘든 군복무까지 끝내고 복학한 아들인데,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영어공부에 열심이었던 아들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제 가슴을 마구 때립니다.

늘그막에나 겪을 법한 크나큰 아픔을 40대, 50대에 연거푸 당하고 보니 제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땅을 딛고 선 사람은 살아야겠기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발등의 불로 느껴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말처럼 이것 또한 제가 이겨내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 의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중인 20대 중반의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버지의 도리요, 의무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 부녀를 지켜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소서. 아멘.



문화영성 산책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교육

김민수 이나시오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총무, 서울대교구 불광동성당 주임신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비신자를 회개로 이끌어야 한다. 교리 시간은 예비신자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2014년 교황 방한으로 한국 천주교회는 대사회적인 긍정적 이미지를 공고히 하며 복음의 열정과 기쁨을 찾는 듯하였다. 하지만 성사 생활과 단체 활동, 신앙 교육은 감소하고 있음이 교세 통계 지표(2014)로 나타났다. 미사 참례율은 20.7%로 신자 5명 중에 1명만이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실정이라서 10%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영세자는 꾸준히 늘어나지만 냉담교우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신자들은 점점 편한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복음적 실천이 결여된 신자들, 사회교리를 잘 모르거나 아예 거부하는 신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새로운 복음화가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분야는 예비신자 교리 교육이다. 왜냐하면 현재 예비신자 교리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세 확장을 위한 양적 선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적 선교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신자 교리의 목적이 영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사랑과 정의, 회개와 용서, 희생과 봉사, 우정과 친교 등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적 선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개인 구원에 대한 신앙에는 철저하면서 사회 구원에 대한 신앙 실천은 외면하거나 귀찮아하는 경향이 짙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비신자를 회개로 이끌어야 한다. 교리 시간은 예비신자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

해, 세례받기 전(before)과 후(after)의 삶에 '자기복음화'가 되도록 예비신자 교리 교수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적 선교에 초점을 맞출 때 예비신자는 단지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배우는 사람으로, 교리 시간은 교회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적으로 풀이하는 시간으로 간주된다.

본당에서 실시하는 예비신자 교리 교육은 대부분 예비신자를 교리를 배우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주입식 전달 교리 방식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예비신자를 대상으로 참고를 할 때 대다수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해내지 못한다. 수많은 교리 내용과 낯선 용어들이 주입되어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민 신부님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 적이 있다. "교리서는 마땅히 유럽 중심의 교의 중심에서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삶의 교리서로 바꾸어야 한다."

교리시간이 지식의 전달을 넘어 그리스도교의 삶을 알리는 삶의 교리, 생활 교리가 되어야 한다는 요지다.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머리로만 신앙을 심어주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 역시 교리가 어렵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만약에 예비신자 교리교재를 삶의 교리서로 바꾼다면 예비신자는 교리에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수용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참여와 체험의 교육으로써 '생활 속의 교육방식' 즉, 신앙생활에서의 체험을 미리 직접 해보는 방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루 봉사 체험'(은평마을, 노인복지관 주방, 벽제 애덕의 집 등) '성지순례'(절두산 성지, 서소문 성지, 배론성지 등) '하루 피정'(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본당 혹은 피정의 집에서) '별도 주일미사'(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예비신자들과 별도로 미사하면서 미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함) 등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예비신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때 교리기간 중 가장 인상적이고 잊히지 않는 시간으로 남아 영세 후에도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이제민 신부님의 주장은 예비신자 교리교육의 토착화와 연계된다. 사실 현 예비신자 교리교재의 커리큘럼 순서와 교리 전수 방식은 한국식으로 토착화되지 않아 교리 이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교리 교재는 하느님 이해하기부터 시작한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도록 이끌어내려 하지만 갖 입교한 예비신자들에게는 그분을 이해하기가 버겁다.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비유 이야기 역시 낯설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하느님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리 교육과 그에 따른 교재는 그리스도교 국가에 대부분이 속한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유럽인에게는 하느님 개념과 성경 이야기는 마치 한국인에게 부처님과 불교 용어가 익숙하듯이 낯설지 않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 발행된 교리교재를 번역해서 한국교회가 사용하는데, 토착화되지

—————
교리서는
마땅히
유럽 중심의
교의 중심에서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삶의
교리서로
바꾸어야 한다.
—————

많은 교리 내용과 순서를 수용자인 한국 예비신자가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군다나 최근 일상의 영성이 강조되면서 일상에서부터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비신자 교리교재의 내용과 커리큘럼 순서를 예비신자들의 일상에서의 체험에서 시작하여 하느님을 찾는 방식으로 토착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교육은 반드시 사회교리를 다루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느님이 주신 인권을 누구나 누려야 하고, 공동선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자들조차 이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 또한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기에 너무도 많은 유혹과 욕망에 빠져 죽음의 문화 속에 휩쓸려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예비신자들에게 사회교리를 교회 지침이나 지식으로가 아닌 삶과 생활 사례로 느끼고 체험하게 해야 한다. 필자는 본당에서 예비신자 교리 커리큘럼에 사회교리를 두 번을 할당하고 있고, 그 교리 시간에 사회교리를 반대하거나 원하지 않는 예비신자가 있다면 아예 세례를 받지 말도록 강하게 언급한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예비신자 교리교육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친교시간이다. 교회 3대 직무로 케리그마(복음선포), 디아코니아(봉사), 코이노니아(친교)를 꼽는다. 이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코이노니아이다. 어느 공동체나 단체가 잘 되려면 서로 친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신자 교리교육도 마찬가지다.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음 선포와 봉사활동이 잘 수행되기 어렵다.

필자는 예비신자가 입교한 후 한 달 전후로 친교의 날을 가져서 야유회를 그들과 함께 다녀온다. 야외에서 함께 모여 자기소개와 게임,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고 친해지는 기회가 된다. 한 번은 야유회 이후 예비신자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다. 가정에 신자가 있으면 괜찮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 다니는 예비신자들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친교의 날은 예비신자 때뿐만 아니라 영세 후에도 영세동기로 만나고 함께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한국천주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은 새로운 복음화 실천으로 타개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 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급한 분야는 예비신자 교리교육이다. 이제는 세례를 줄 때 여러 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비신자가 세례 받기 전까지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한 사회교리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는 6개월 기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8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교리교재를 한국식으로 토착화해야 하고, 예비신자를 수동적 수용자로 대하는 주입식 교리가 아닌 참여와 체험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도 변해야 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공소의 겨울 풍경, 요골 공소

촬영 · 정리
이강덕 시메온



요골공소는 1866년 병인 박해 이후 각지에서 명곡리에 모여든 신자들이 일군 교우촌에 기원을 둔다. 경기도 고양군 출신 이화진 베드로가 군란을 피해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요골에 정착하였다. 그는 선교사들이 이 지역을 순방하면 자신의 집을 공소로 삼아 선교사들을 맞이했고, 인근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을 모아 요골에 살도록 하면서 전교회장으로 봉사하며 열심히 활동하였다.

1884년 두세 신부에 의해 공소가 설립되었고, 요골공소 초기에 이씨, 성씨, 김씨, 구씨들이 살았는데 이들 집안에서 차례로 사제와 수도자가 배출되었다.

구씨 집안에서 구전희, 구자오, 구자윤, 구본곡 신부 등 4명의 사제가, 김씨 집안에서 김운상, 김영관 신부 등 6명의 사제, 7명의 수녀, 1명의 수사, 3명의 동정녀가 배출되었다. 요골공소의 독실한 신자들의 뿌리 깊은 신앙생활이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 이전까지는 공소 강당 중앙에 칸막이를 설치해 남녀 신자가 함께 앉지 않았고 '남녀 7세 부동석'의 양반 전통을 지켰다. 6.25전쟁 때 인민군들이 회의장으로 쓰기 위해 칸막이를 철거하였다.

1884년경에 40여 명의 신자가 있었고, 1915년엔 160명의 신자가 모이던 공소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5가구, 30명의 노인 신자들이 공소를 지키고 있다. 

•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95번지
• 본당: 중동 성당

• 전화: 041. 856. 1033

인문학 강좌

삶과 죽음

김문태 헬라리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의 종말이자 절망의 나락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하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를 고고지성(呱呱之聲)이라 한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 기도가 막혀 호흡이 곤란해 헐떡이며 내는 소리를 천명(喘鳴)이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고지성으로 시작하여 천명으로 끝을 맺어야만 하는 운명적 존재다. 『성경』은 인간이 그러한 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는 까닭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 아담은 모두 구백삼십 년을 살고 죽었다.” (창세1,26-5,5)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창조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철학자의 성찰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할 운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눈앞에 닥친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아니,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Elizabeth Kubler Ross는 『죽음과 죽어감』에서 임종 환자의 심리적 변화를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부정과 고립’으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처지를 강하게 부정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2단계는 ‘분노’로 적개심을 갖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3단계는 ‘협상’으로 자신의 처지를 다소 인정하지만 지난날을 회개하고 후회하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길 바란다. 4단계는 ‘우울’로 죽음을 불가피하게 여기며 깊은 슬픔에 빠진다. 5단계는 ‘수용’으로 자신의 죽음을 비로소 인정하며 안정을 취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나름대로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그처럼 일찍 죽어야만 하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만은 오래도록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믿어왔던 데 기인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많은 이들이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자신의 자서전인 『생의 수레바퀴』에서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 부른다. 그러나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고 한 말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연구는 곧 삶에 대한 지향이었던 것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의 종말이자 절망의 나락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하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삶의 한 매듭이며, 또 다른 생명으로의 전이인 것이다.

우리 천주교회 박해시기 때, 교리를 용이하게 전파하기 위해 천주가사를 창작하였다. 그 중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최양업 신부가 직접 창작하였다고 전해지는 〈사향가(思鄉歌)〉가 있다. 하느님 나라인 고향을 그리는 노래다. 이 노래는 안으로는 신자 교육, 밖으로는 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교와 적대자들을 향한 호교의 양상을 띠고 있다. ‘어화 벗님네야 우리락토 찾아가시’로 시작하는 〈사향가〉는 죽음 이후의 개별심판, 최종심판, 천당, 지옥 등과 같은 사말(四末) 교리에 주안점을 두고, 현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노래에 따르면 현세는 잠깐 지나가는 풍진세계로서 눈물의 골짜기이자 귀양살이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현세의 즐거움을 탐할 것이 아니라, 사후의 심판과 그에 따른 지옥과 연옥과 천당을 염두에 두고 선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참된 도리를 몰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세속사람들과 달리, 낙원이자 고향인 천당의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며 신자답게 살아야 대부모(大父母)이자 대은주(大恩主)인 천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향가〉는 현세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무게 중심을 둬으로써 자연스럽게 순교영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천주가사의 시점은 전적으로 죽음 이후의 하느님 나라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세에서 맛보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생지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생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거룩한 빈자를 찾아서4

황인수 이나시오 성바오로수도회 수사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자신에게서 구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문득 문득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자 프란치스코_리에티

리에티로 방향을 잡고 내려간다. 만년에 프란치스코는 눈병 치료를 위해 리에티에 머문 적이 있다. 몸을 도무지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를 총 봉사자 엘리야가 강권하여 용한 의사가 있는 리에티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리에티 근처의 은둔소에 머물면서 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은둔소는 아마 폰테 콜롬보를 가리키는 것 같다. 폰테 콜롬보에는 프란치스코가 눈병을 치료한 장소가 보존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인도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이 길을 다녔으리라. 눈이 거의 멀다시피 한 성인이 나귀에 의지하여 다녔을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 고요하지만 생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길이다.

그는 사방으로 넓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음 속에 갇혀 있는 간절하고 헌신적이며 열성적인 정신으로 어디에서나 하느님 말씀의 씨를 뿌렸다. 그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웠고 그러기 위해서 보통 하루에 네댓 동네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누구에게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는 말보다도 표양으로 듣는 이들을 감화시켰고 온 몸이 희로 변하여 말을 하였다. (제1생애, 97)

프란치스코의 전기 작가 첼라노의 토마스는 여행자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움브리아 지방을 다녀 보면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은 마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몇 년 전 방학 때 친구의 고향인 파노에 간 적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만난 이웃들이 “평화와 선!”하고 인사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 왜 저런 인사를?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곳도 프란치스코가 늘 돌아다니며 평화를 선포하던 땅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한곳에 머물며 살던 중세의 수도승들과 달리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던 탁발 수도사였다. 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작은 형제다. ‘탁발 수도사’라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거지 수도사’가 아닌가. 내가 아는 프란치스코회 수사님 말로는 요즘도 프란치스코들은 ‘탁발’의 체험을 한단는데 정해진 장소까지 돈 없이 여행하도록 하는 그런 체험인 모양이다. 그 수사님도 별 수 없이 지하철역에서 여비를 청해야 했는데 그때 돈을 주던 어느 중학생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했대던가.

산길이 끝나고 리에티로 이어진 도로를 만났다. 점심때가 되어 근처 가게에서 빵 몇 개와 매운 소시지를 샀다. 계속 싱거운 여기 음식들만 먹다 보면 뱃속에서 좀 매운 걸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천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시의 교리에서는 현세가 번개처럼 지나가는 의미 없는 나그네 길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나치거나, 혹은 허황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천상 교회의 하느님 나라보다는 지상 교회의 하느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적어도 우리 초기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천주의 자녀이자 예수의 제자인 신자들이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다. 오늘날처럼 현세 중심적, 물질 중심적 사유가 팽배한 가운데 과연 정신적 가치, 또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개별심판과 최후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야 할 지옥·연옥·천당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죽음 이후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지복직관에 대한 갈망은 있는지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곧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때 죽음은 고통스러운 삶의 끝이 아니라, 42.195km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결승점에 도달하였을 때와 같은 대견함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늘 죽음을 묵상하는 한편,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득 앞을 볼 수도,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이 떠오른다.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되묻게 된다. 앞으로 사흘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구상 시인의 <오늘>이라는 시가 빛난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짜기 웅덩이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처럼
현세 중심적,
물질 중심적
사유가 팽배한
가운데 과연
정신적 가치,
또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게 우리네 식성이다. 마침 고추를 넣어서 만든 빨간 소시지가 있어 그걸 샀다. 3유로어치 고추 소시지와 4유로어치 빵, 아스팔트 길을 지중해의 짹짹한 햇살 맞으며 걸으려면 미리 방비를 좀 해 두어야 한다.

“...영혼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란 그는 이웃의 영신적 성장을 갈망한 나머지 걸을 수 없을 때는 나귀를 타고 두루 돌아다녔다.”(제 1생애, 98)

프란치스코가 부지런히 길을 나섰던 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어느 작가의 말대로 길에 순명하면 길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프란치스코에게 그 길은 십자가에서 그를 부르시고 나환자와 같은 가난한 이들에게 그를 보내신 예수님의 길이였다. 프란치스코는 자신 앞에 놓인 길을 걸어 그 길에 자신을 포개었고 그렇게 그 자신도 길이 되었다. 프란치스코가 “온몸이 혀로 변하여 말을 하며 걷던 길”을 우리도 걷고 있다. 햇살은 따갑고 길은 멀고... “길은 길어서 길이구나” 푸념을 하는데 해바라기밭이 나타난다. 끝없이 펼쳐

진 해바라기밭, 따가운 햇살, 함께 걷는 나무 수사님의 추적추적 발소리... 7월의 햇살 아래 작은 씨앗들을 익혀 가는 해바라기들 얼굴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 얼굴 같다는 생각이 얼핏 떠오른다.

용서의 동굴 포지오 부스토네

리에티에서 버스를 탔다. 코트랄Cotral이라는 푸른색의 시외 노선 버스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버스를 타면서 기사 분에게 “포조 부스토네 가는데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걱정 말아요. 우리가 챙겨 줄 테니!” 하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울린다. 앞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합창이다. 친절하고 인간미 넘치는 여기 사람들 모습에 나무 수사와 얼굴을 마주 보고 웃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친절하면 시쳇말로 ‘간이라도 빼 줄 것 같이’ 다정해지는데 우리 모습과도 많이 닮아서 인가, 이런 때에는 유쾌한 정이 느껴진다. 물론 가끔 과하다 싶은 때도 있지만. 우리가 탄 버스에도 운전기사 위쪽에 “기사에게 말 걸지 마시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세상에나! 아마 기사가 앞자리 승객과 말을 나누느라 정신을 팔다가 교통사고라도 났던 게다.

우리가 가는 곳은 포조 부스토네Poggio Bustone.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화를 선포하기 시작한 선교의 출발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그런 연유로 ‘빛과 평화의 성지’라 불리기도 하고 성인이 자기 죄에 대한 용서에 확신을 얻은 곳이기에 용서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루는 그에게 내려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놀라면서 주께 간구하기를 자기 자신 및 형제들이 살아갈 길을 보여 주시기를 소원하였다. 그는 자주 그랬듯이 기도할 곳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물렀다.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비참하게 보낸 지난 여러 해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였다(제 1생애, 26에서).

여기 성인의 일화에 나오는 ‘죄’라는 말에 부끄러움이 떠오른다.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 어디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하는 그런 죄 말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감정 같은 것 말이다. 절대자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분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 자신이 맞가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은 가장 근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다. 아담과 하와가 문득 하느님의 시선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부끄러움은 존재에 대한 감정이고 자신이 갇혀 있는 몸체에 대한 감정이 아닐까. 하느님께 다가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나의 몸체에 대한 감정 같은 것, 정신을 배반하게 하는 몸체에 대한 감정 같은 것 말이다. 토마스 켈라노는 프란치스코의 회심 초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미아노 성당을 밝힐 등잔의 기름을 구걸하러 다니던 성인이 옛 친구들이 모여 있는 집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 발길을 돌렸다가 다시

몸을 돌려 그들에게 제 속에 일던 감정을 고백하고 기름을 구걸하여 얻었다는 얘기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뜻이다. 제 속에서 일어난 인간적인 일을 고백하고 구걸을 계속했다는 것은 자기를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회심 이후에도 성인의 마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버스는 야고보 성당 앞 정류장에 도착했다. 경사가 상당히 급한 중턱에 포조 부스토네 마을이 있고 그 제일 위쪽에 성 야고보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성 야고보 수도원과 붙어 있다. 우리는 먼저 성인이 기도했다는 위쪽의 동굴에 오르기로 했다. 포조 부스토네의 산 위 동굴에서 자기 죄를 아파하며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차츰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떤 즐거움과 대단히 큰 감미로움이 마음 깊은 곳에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초연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억누르던 어둠이 밀려남에 따라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은총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보이는 것이었다.(제 1생애, 26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자신에게서 구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문득 문득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다가도 말꼬리를 흐릴 때가 있을 것이고 행동에도 자신 없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으리라. 그러나 존재의 이유를 하느님에게서 구하는 사람은 다를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여기에서부터 세상에 나아가 선포를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이 그를 일어나 세상

으로 나가게 했다는 뜻이 아닐까.

산 위 동굴에 들어서자 누가 붙여 놓은 글귀가 눈에 뜨인다.

이 '거룩한 동굴'에서 성 프란치스코 사부께서는 긴 통회와 기도 끝에 첫째, 세상에서 행할 사도적 사명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둘째, 그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얻었으며 셋째, 그의 형제들이 크게 불어나리라는 계시를 받았다.

오 경건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동굴을 찾아온 순례자여, 하느님의 자비를 얻으리라는 희망을 맘속에 품지 않았거든 이곳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들은 대로 밖에 나가 종을 치기 시작했다. 함께 오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올리는 중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 또한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부름 받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천천히 산을 내려와 성 야고보 성당 앞 광장에서 쉰다. 우리가 올라갔던 은수처는 해발 1019미터이고 이곳 마을과 성당은 해발 750미터쯤 되는 곳에 있어 아래쪽 평원과 근처 산들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나무 수사와 지친 다리를 주무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진장한 영감님 한 분이 다가왔다.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지를 찾은 순례자라고 하자 반색하며 직접 쓴 시를 한 편 보여 준다. 어느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여기 광장에



와서 산 위 프란치스코의 은수처를 바라보다가 영감이 떠올라 지은 시란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시를 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아, 그렇지. 이분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젠가 여기서 프란치스코를 만나 알던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는구나.

여기 광장에서 검푸르게 빛나는
산 위 바위를 바라본다

그 아래엔 가난한 이들과 외투를 나눠 입었던
가난뱅이 은수자의 작은 경당이 있고
거기 1209년 포조 부스토네에 온 프란치스코가 있다

안녕하세요, 선한 사람들이여
그 아침에 그는 말했다
빵 한 조각과 포도주를 조금 주세요
그는 제 운명을 따라 산으로 가기 위해
맨발로 천천히 마을을 가로질렀다

험한 언덕 사이로 난
작은 길을 걷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바위 위에서 쉬었다.
어깨 위에는 작은 보따리 매달린
지팡이 하나

절벽 아래서
바위 사이 작은 동굴을 보자
그는 모자를 펴고 바위 위에 누워
기뻐하며 외쳤다!
내 집이다
길의 끝에서 집을 찾았다

그는 늑대와 새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나를 내쫓지 말아 다오
자! 노래하고 외치렴
나는 조금 쉴게
새들은 금작화 나무 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며 큰 축제를 벌였다

잠에서 깬 가난뱅이 프란치스코가
친구들에게 외쳤다
나 너희를 벗으로 삼고
여기 머물러야지!
이 동굴을 떠나지 않으리라

‘포조 부스토네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바치는 시 Poesia a S. Francesco di Poggio Bustone’라는 제목이다. 피에트로는 이 시로 상을 탔다며 상장을 보여 주었다. 종교시 부문 3등이라 적힌 상장에는 “시인은 단순하고 생기 있게 성 프란치스코가 포조 부스토네에 도착한 일을 묘사한다.”고 심사위원 총평이 적혀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시인 대회가 여기저기에서 개최되는 모양이다. 얼마 전 아시시에서도 시인 대회에 참석하려고 북쪽에서 온 농부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시인 대회는 우리 식

으로 하면 백일장 같은 것인데 그런 모임이 학생들뿐 아니라 나이와 계층을 불문하고 열린다는 것이 신선했다. 농부와 트럭 운전수가 같이 참여하는 백일장이라니... 생각만 해도 멋있다.

성 야고보수도원은 성당과 바로 접하고 있는데 1217년 성 프란치스코가 처음 세웠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니 성인의 생애가 그려진 프레스코 화들이 눈길을 끈다. 그중에는 육욕을 이기기 위해 성인이 가시덤불에서 알몸으로 구르고 있는 그림도 있다. 나귀 형제, 프란치스코는 자기 몸을 이렇게 불렀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형제다. 젊은 시절 단식과 밥샘, 고행으로 나귀 형제를 혹독하게 다루었기에 만년에 프란치스코의 나귀 형제는 몹시 약해졌다.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 그의 몸, 힘들게 한 세상 그를 태우고 온 나귀 형제를 프란치스코는 안쓰럽게 여겼지만 이미 그 형제는 몹시 지쳐 있었다. 육신은 영혼을 태우고 가는 나귀, 때로 고집을 피우고 때로 힘들어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 주고 달랠 일이다.



광장으로 다시 나오니 나귀들이 또각또각, 나뭇짐을 잔뜩 등에 지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맨 앞 나무꾼이 끄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나귀들이 안쓰럽다. 당나귀들을 무척 사랑했던 어느 시인이 생각난다. 🍒



복자들의 영성

김강이 시몬 강원도 원주의 첫 증거자

김길수 사도요한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먹어야 함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대교회의 증거자들은 이 절박한 원초적 본능의 요구도 하느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용납하는 초인적 절제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 메며 숙연해질 뿐입니다.



태백산맥이 용트림 하듯 굽이쳐 있는 강원도는 산세가 깊고 험해서 무수한 박해로 고초를 겪었던 한국 초대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좋은 피신처가 되었습니다. 1801년 최초의 전국적인 박해가 있는 뒤 남은 신자들이 강원도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던 1815년에 경상도에서 박해가 일어나 잡혀간 신자들 가운데 모진 매를 견디지 못해 강원도로 피신해간 신자들을 밀고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박해의 손길이 강원도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강원도의 으뜸 고을인 원주에서도 용맹스러운 순교자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증거한 주인공이 바로 김강이 시몬입니다.

김강이 시몬은 “여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성”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충청도 서산지방의 중인 집안 출신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고상하고 용맹하였으며 가세도 넉넉하여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천주교를 알고 신자가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한국 초대 교회에 아직 단 한 분의 신부님을 입국하기 전에 입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도 초대 교회의 우리 신앙 선조들처럼 다만 서책을 통해 교리를 익히고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입교자가 된 선구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된 후 삶의 자세와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그는 집안에 거느리던 종들을 모두 모아 자립할 만큼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

인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직 신앙적 삶에 전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친지와 친척마저 떠나고 오로지 동생 김창귀 타테오와 함께 전라도 고산 고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의 길만 찾으려는 그에게 자비로운 섭리의 손길처럼 소중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그곳 고산에서 주문모 신부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목사제로 입국하셨던 주문모 신부님은 1795년 4월에 고산에 살고 있었던 당대 한국 천주교회 최고 지도자 중 한 분이셨던 이존창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강이 시몬은 신부님을 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몇 차례 신부님의 처소에 머물기도 하면서 온갖 영적 목마름을 다 풀고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면서 신자들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성 때문에 1801년 박해가 일어났을 때 관에서는 그를 유력한 천주교 지도자로 지목하고 그의 인상과 특징을 적은 것을 포졸들에게 나누어 주어 사방을 두루 다니며 그를 잡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박해 때 포졸들이 이렇게 인상과 특징을 적어 지목하여 체포하게 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이로 인해 김강이 시몬은 1년 이상을 숨어 사는 곤경을 겪었습니다. 그가 숨어 사는 동안 그의 아내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1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많은 돈을 쓰고서야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가 끝나도 더 안전하게 몸을 숨기려고 궁리한 끝에 등짐 장사꾼으로 변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등짐 장사꾼으로 변신해 등짐 장사꾼들 틈에 끼어 외교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모습을 숨겼지만 그 틈바구니에서도 은밀하고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몇 사람의 등짐 장수꾼을 입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교한 후 오직 영적 삶만 갈구하여 종들과 재산을 버리고 고향마저 버렸던 그가 비록 등짐 장사꾼으로 포졸의 추적을 피했지만 그런 생활로는 신심 생활을 할 시간과 자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고심하던 그는 박해의 고비가 주춤해진 틈을 타 이 등짐 장사꾼 행세를 버리고 경라도 머루산으로 피해 들어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가 권유하여 입교한 신자 몇 사람이 그를 따라 가족을 데리고 함께 들어와 조그마한 교우촌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김강이 시몬의 열성으로 그 이웃의 몇 집이 또 입교하였으나 포졸의 추적이 계속되어 그와 교우촌 사람들은 몇 차례나 이사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머문 곳이 강원도 울진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정착지였던 그곳에서 경상도 박해 때 잡혀간 그의 집 하인의 밀고로 경상도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를 묶고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포졸들이 탐욕스럽게 그의 가산을 가져갈 수 있는 대로 휘둘러 가는 모습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바라보며 그가 안동 관아로 끌려갈 때가 1815년 4월이었습니다.

김강이 시몬은
신부님을
뵈게 되었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몇 차례
신부님의
처소에 머물며
온갖 영적
목마름을
다 풀고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며
신자들을
이끄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인의 밀고 그림/ 탁희성 화백

김강이 시몬이 안동 관아 옥에 이르렀을 때 이미 갇혀 있던 많은 교우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굶주린 모습이 참혹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움직이는 동작까지 느끼고 둔해 눈물겹기만 했습니다. 김강이 시몬은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 포졸들이 약탈해간 자기의 가산을 돌려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관장에게 포졸들이 탐욕스럽게 약탈해간 가산을 되돌려줄 것을 청원했는데, 관장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뜻밖에도 포졸들을 꾸짖고는 약탈해간 물건들을 모두 가져오게 했습니다.

김강이 시몬은 돌려받은 자신의 자산을 모두 갇혀 있는 교우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안동 관아의 옥에 갇혔던 교우들은 그들의 참혹한 처지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엄숙한 진실입니다. 먹어야 함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대교회의 증거자들은 이 절박한 원초적 본능의 요구도 하느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용납하는 초인적 절제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 메며 숙연해질 뿐입니다.

이 준엄한 순교자들의 모범이 있는 한 주님 사랑의 질서를 위반한 우리의 잘못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것을 느끼며 다만 겸허한 자세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김강이 시몬은 이 일이 있은 후 포졸들에게 원망과 분노를 사, 여러 번 문초를 당할 때마다 더욱 가혹한 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혹한 문초에도 굴복하지 않은 김강이 시몬의 모습을 더욱 밍게 생각한 포졸들은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지만 그는 의연한 태도로 모두 이겨 내었습니다.

5월에 그의 아우 타데오와 함께 그가 살았던 강원도로 이송되어 원주 감영으로 옮겨졌습니다. 원주 감영에서 몇 명의 교우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도 그와 함께 이웃하여 은밀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동지들은 그렇게 감옥에서 서로 눈물겹게 만나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진리를 묵묵히 입증해 냈던 것입니다.

원주 감영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심문하고 투옥시킨 것은 이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강원도의 첫 증거자들이요 원주 감영에 투옥된 최초의

천주교 신자들인 것입니다. 김강이 시몬은 이곳에서 자랑스러운 강원도 원주의 첫 증거자로서 불굴의 자세로 의연히 그의 신앙을 밝혀 주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감영의 형리들은 말만 들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의연한 자세와 부드러우면서 강철보다 더 강한 의지를 직접 보고는 놀라워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명심에 불타 더욱 모질고 거친 형벌로 신자들을 위협하며 괴롭히고 심문하였습니다.

형리들의 심문이 모질수록 김강이 시몬은 더욱 깨끗하고 결연한 태도를 보이며 모든 형벌과 간악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우 김창귀 타데오가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하여 배교하자, 김강이 시몬은 아우의 변절과 배교를 대신 갚기라도 하듯이 안타까워하며 더욱 준열한 신앙심과 인내심을 보여 관장과 형리들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이러한 김강이 시몬의 불굴의 의지를 보고 더 이상 화유나 형벌이 소용없음을 깨달은 관장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지도록 처리했습니다. 임금의 윤허를 받기 위해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때 원주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강이는 비밀리에 신자들에게 천주교 서적과 소식을 전해 왔으며, 여러 해 동안 천주교 교리를 외우고 익혀서 온몸으로 깊이 빠졌습니다. 이에 합당한 법률을 시행토록 허락해 주십시오.”

[일성록, 순조 을해년(1815년) 10월 18일]

임금은 즉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윤허하였습니다. 조정의 회시가 내려오는 대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 김강이 시몬은 옥고와 형벌로 몹시 쇠약해진 데다 옥중생활로 얻은 이질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관장은 몸도 움직일 수 없이 중병을 앓고 있는 그를 두고 사형집행을 위한 조정의 회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강이 시몬은 그토록 그가 원하던 참수순교를 하지 못하고 다만 주님 섭리에 겸허하게 의탁하며 임금이 윤허한 사형 집행의 전갈이 원주 관아에 도착하기 전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김강이 시몬이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질 경우 그는 참수회명을 소원했지만 옥사 선종한 그때는 1815년 15월 5일로 그가 원주 감영에 갇힌 지 8개월 만이고 그의 나이 50세를 넘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주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감영의
형리들은
말만 들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의연한 자세와
부드러우면서
강철보다
더 강한
의지를 직접
보고는
놀라워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영화 속 '인간과 세상'

로버트 드 니로의 인턴

이대현 요나 영화평론가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낮고, 빛이 안 나고, 금전적 보답 하나 없는 봉사라 하더라도 그 시간만이 삶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2015.9.24./ 121분
미국/ 12세 관람가/ 감독 낸시 마이어스

인턴. 사전은 '회사나 기관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전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 또는 그 과정'이라고 서술한다. 한마디로 정식 직원이 되기 전의 훈련생이란 말이다. 의사 등 극히 일부 직업에 국한됐던 이 과정이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

무슨 제도든 취지가 나쁜 것은 없다.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인턴도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업무를 미리 익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도 배우고, 정식 취업의 기회도 얻고, 비록 적지만 임금도 받고,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않는다. 인턴제도도 마찬가지다. 회사나 기관이 정말 본래 목적을 위해 필요해서 인턴을 도입한다면 좋겠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억지춘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의류쇼핑몰업체인 '어바웃 더 핏'의 30세 여성 워킹맘 CEO인 줄스(앤 해서웨이)도 그랬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니어 인턴인 70세 노인 벤(로버트 드 니로)을 고용했다.

섬세한 감성 표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감독 낸시 마이어스의 <인턴>은 40년의 나이 차,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노인과 인생을 막 시작한 젊은 여성의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방식, 삶의 의미와 선택, 그것이 주는 가슴 훈훈한 미소와 눈물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다. 미국 영화지만 마치 나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0년의 나이 차,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방식, 삶의 의미와 선택, 그것이 주는 가슴 훈훈한 미소와 눈물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



노년, 고령화, 은퇴, 제2의 삶, 이런 단어들이 바로 나와 나의 아버지의 현실이 되어버린 세상, 인간이 하나의 직업이나 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는 세상, 정년퇴직을 하고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벤은 프로이드의 말을 빌려 “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라”고 말한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친구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낮고, 빛이 안 나고, 금전적 보답 하나 없는 봉사라 하더라도 그 시간만이 삶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정부의 선전구호만은 아니다. 40년 동안 다니던, 지금 세대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전화번호부 책 제작회사를 은퇴한 후 벤은 여행, 골프, 독서, 영화 감상, 중국어 배우기 등 뭐든 다해보았지만, 삶에 난 구멍을 메우지 못했다. 그가 한 것은 일이 아니었으며, 그 구멍은 일만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매일 어딘가로 출근하고 뭔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벤은 자기소개 동영상 하나 제대로 찍을 줄 몰라 손자에게 배워서 겨우 만들어 보내고, 아직도 탁상시계 자명종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만년필로 메모하는 아날로그 세대이지만 디지털 온라인 의류 쇼핑몰 회사에 비록 6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시니어 인턴생활을 시작한다.

그에게는 낯선 세상으로의 첫 여행이나 마찬가지로. 그곳은 그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르다. 정장 대신 자유복을, 서류 가방 대신 노트북을, 편지나 전화 대신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를,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넓은 한 층에 직원들이 모두 모여 근무하고 사장은 사무실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이런 낯설고 새로운 세상에서 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어보였고,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신세대 줄스에게 벤은 그저 아무런 쓸모없는 낡은 유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도 처음에는 자기 곁에 두기를 거절하고, 동료 카메론의 추천으로 마지못해 곁에 있게 되지만 하루 종일 업무지시나 협조 메일 한 통 보내지 않는다.

〈인턴〉은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작은 에피소드로 풀어낸다. 이를 위해 영화는 벤이 가진 아날로그적인 삶의 미덕들이 디지털 세대인 줄스의 ‘일과 사랑’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코쿠리코 언덕에서〉처럼 “낡았다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벤이 자신의 과거를 전부 가지고 이 낯선 세계로 여행을 고집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줄스에게 “너희 세대들이 뭘 알아.”라며 억지로 자신의 것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제2 인생여행을 위해 벤은 과거의 권위나 보답, 대접받기를 버렸다. 대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다른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가 인간인 한 일과 사랑에서 변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과 경험들을 ‘처음부터 세상은 디지털’이라고 생각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줄스와 동료들에게 요란하지 않게 선물한다. 어쩌면 일과 사랑, 회사와 가정, 아내와 CEO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줄스야말로 인생에서 ‘인턴’에 불과한지 모른다.

그 젊은 인턴에게 늙은 인턴이 마치 멘토처럼 일과 사랑의 지혜를 알려주고, 세심한 배려로 구멍 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준다. 지저분한 책상을 몰래 깨끗이 치워놓고, 세심한 관찰로 술 먹은 운전기사를 돌려보내는 대신 자신이 차를 몰아주고, 외부 전문 CEO 영입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오해한 여자 친구로 고민하는 젊은 직원에게는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닌 직접 말로 사과하고 눈물을 닦아주라고 손수건을 빌려준다.

그것이 때론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넓은 오지랖으로 느껴져 줄스의 기분을 상하게 해 잠시 멀리하게 만들지만,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스는 그를 다시 찾는다. 물론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아내 때문에 전업주부가 된 남편의 외도로 혼자가 될까 두려워하던 줄스는 일과 사랑 모두를 다 지켜내고, 소중한 일의 파트너이자 인생의 친구, 멘토를 얻었다.

그것이 단순히 “CEO만 구하면 행복할까?” “불륜 막으려고 다 포기하지 마라.” “1년 반 전에 창업해 이렇게 키운 것을 잊지 말아라.”는 벤의 조언 몇 마디 덕분일까. 결코 아닐 것이다. 줄스에게 벤은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었다. 벤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너그러운 존중, 소통과 공감, 겸손과 세심함, 진정성이 아닐까? 거창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눈물을 닦는데 빌려주기 위해 준비한 손수건처럼 작지만 필요하고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 하고 영화 〈인턴〉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삶이란 어차피 내 것을 하나하나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래야 어디에선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 노년이 될수록 더욱 더. 🍷

삶이란
어차피
내 것을
하나하나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래야
어디에선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



성화에 얹힌 이야기

미켈란젤로, 인류의 탄생과 종말을 그린다

고종희 마리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오랜 노고의 탓에 내 목에는
혹이 하나 생겼다. 머리는 뒤로
젖혀지고 수염은 하늘로 거꾸로
솟았고, 배는 턱을 향하여 불쑥 내밀고
있다. 그리고 가슴은 비둘기 가슴처럼
돼 버렸다. 물감은 내 얼굴에 흘러서
모자이크를 만들었다.”(롤랑 p. 94)

시스티나 천장화를 그리고 있는
자신을 표현한 미켈란젤로의 말이다.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천장화(부분)〉
1508~1512, 프레스코,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미켈란젤로는 고생을 사서 하는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 조각가가 채석장에 가서 돌을 직접 채
석했다는 이야기는 미켈란젤로 말고는 들은 적이
없다.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묘비를
조각하기 위한 대리석을 확보하기 위해 8개월 동
안 까라라의 채석장에서 지내며 인부들과 함께 생
활했다. 돌을 채석하는 일도 힘들지만 그것을 우

마차로 끌고 항구까지 옮기는 일, 배편으로 로마
까지 운송하는 일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일이어서
아무리 조심해도 도착해보면 돌이 깨져 있는 경우
가 부지기수였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무덤 조각을 만들
돌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무
덤 조각 대신 시스티나 천장화를 그리라고 했다.

그는 4년 동안 물감 개는 조수 한 명만 데리고 7층 높이의 비계 위에 올라가서
마른 빵으로 식사를 하며 홀로 작업을 했다.



오랫동안
장화를 벗지
않고 지내는
바람에 발이
장화에
달라붙어서
장화를 벗기
위해 칼로
살을 베어낼
때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는
기록이 있다.

거대한 기념비를 만든다는 기대감에 그 어려운 채석장 생활도 견딘 것인데 갑자기 경험도 없는 천장화를 그리라니 미켈란젤로가 겪은 절망과 분노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며 그토록 거부했던 천장화를 그는 결국 완성했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작이 되었다. 그는 4년 동안 물감 개는 조수 한 명만 데리고 7층 높이의 비계 위에 올라가서 마른 빵으로 식사를 하며 홀로 작업을 했다. 오랫동안 장화를 벗지 않고 지내는 바람에 발이 장화에 달라붙어서 장화를 벗기 위해 칼로 살을 베어낼 때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는 기록이 있다. <천지창조>로 알려진 이 천장화의 완성 후 그의 시력은 나빠졌고, 편지를 읽을 때에도 한동안 누워서 읽어야 할 정도였다.

그로부터 30년 후 미켈란젤로가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시스티나 경당의 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라는 주문을 교황 클레멘스 7세로부터 받았다. 이 일 역시 말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으나 피할 도리가 없었고 4년간의 외로운 작업 끝에 완성하였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경당에 그린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은 인간과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종말을 그린 것이다. 그것은 두 점의 작품이지만 규모로 보면 다른 작가의 작품 수십 점을 모아놓은 것 이상이다. 이 거대한 두 작품을 작가가 극구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의 시작과 종말이다. 다른 곳이 아닌 교황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의 경당에 이 같은 주제를 갖고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술사적으로 보면 이들 작품은 전성기 르네상스 회화의 정점이자 당시의 양식이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여 새로운 역사를 쓴 걸작이다. 오늘날 미켈란젤로가 받고 있는 칭송은 조각보다는 오히려 이 두 점의 그림 때문일 수도 있다. 미켈란젤로는 이 엄청난 대작을 그리기 위해 수년간 작업하면서 하느님을 만났을 것이다.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양식사적 의미로보나 한 인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의 글에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절망 속에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과 늘 함께하였을 것이다. 그의 작업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특강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임숙희 레지나 엔아르케 성경삶연구소 대표

저는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성찰하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 로마 4장에 묘사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로마 5,1-11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 배운 신앙의 신비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입니다. 이것은 바오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로마 5-8장. 우리 체험 이야기

바오로는 로마 4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4,25). 로마 1-4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의화'라면 5-8장의 주제는 '세례받은 이들의 새로운 삶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전개되는 것이지요. 로마 5-8장을 읽을 때에 두 가지 요소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로마 5-8장의 전제에 해당하는 배경으로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사이의 대조 *antitesi*가 암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편에는 아담(죄, 죽음, 율법, 육)이 있고, 반대편에는 그리스도(의화, 생명, 은총, 성령)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삶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이 있습니다. 로마 5-8장의 맥락에 따르면 믿는 이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건너간 사람',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간입니다. 둘째, 1-4장과 비교해서 5-8장에서 일인칭 복수형, '우리'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

을 보게 됩니다.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주로 로마인들과 자신이 같이 체험하고 있는 신앙을 나누고 그 체험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전달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그 공통 기반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5,1-11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 5,1-11은 로마 5-8장에서 입문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표현이 이 대목의 처음과 끝을 열고 닫는 표현입니다(1,11). 전반부인 5,1-5에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인 체험의 첫 출발점에 대해 다루면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 삶의 고통이 방해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당신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5,5). 후반부인 5,6-11의 중간인 6절에서 바오로는 '하느님 사랑'의 계시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6절). 하느님 사랑은 우리 느낌이나 감정, 생각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찬란히 빛납니다.

바오로는 10절에서도 일인칭 복수형 ‘우리’를 통해 믿는 이들에게 공통적인 역사 전체를 요약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자랑이 미래의 희망만이 아니라, 또한 현재의 체험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화의 목표는 하느님을 닮은 삶, 하느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것, 현재에 내 삶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내 삶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화를 완전히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의화, 곧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의 첫 단계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뒤에 인간을 계속해서 의화시켜 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5,1-11에서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바오로는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런 죽음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오로가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감정을 섞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케리그마) 형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단어는 ‘하느님,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오로는 항상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

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우리를 위하여’와 밀접하게 연결하지 않으면 피상적인 수난 이해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정말 나의 일임을 인정할 때, 내면화할 때, 그리스도 수난의 의미를 정말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은 내 죄가 그분을 죽였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청중에게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나자렛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인이신 분을 부정했습니다!”(참조. 사도 2,23; 3,14). 베드로는 이 3,000명이 골고타에서 예수님을 직접 못 박지 않았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도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사도 2,37)라고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598항에서는 “계속해서 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악습과 죄를 즐김으로써 마귀들과 함께 주님을 못 박았으며, 지금도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권고』5,3)라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고통과 사랑

하느님의 외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 5-8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인데, 바오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원천이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하느님은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용하실까? 아들에게 무정한 그런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지구 곳곳에서 폭력에 의한 무죄한 이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들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IS에 의해 살육당하는 임신부의 태아들과 시리아 난민들의 아기들의 비참한 죽음을 허용하는 하느님을 믿을 수 없어.” 인간의 고통은 쉽게 하느님의 부재와 불신앙과 연결돼 버리곤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에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증언, 특히 구약을 살펴보면 하느님은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하늘에서 인간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 마음속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창세 6,6). 광야에서도 백성들의 배반에 슬픔을 느끼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께 반항하였고 황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을 괴롭혔던가!(시편 78,40).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고 외치는 하느님의 고통에 찬 외침을 소개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고통 앞에서 아무 감정 없이 구경꾼처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바오로는 로마 8,32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과 창세 22,16에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사악의 희생제사와 관련된 표현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창세기 설교』에서 창세 22,16을 해설하면서 바로 바오로를 떠올립니다. “이 말씀을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바오로와 비교해봅시다. 그분은 당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사악을 죽이기 위해 모리야 땅에 있는 산에서 아무 말 없이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하느님 아버지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속(救贖)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아버지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느님 뜻에 따라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갈바리를 향할 때 부재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아브라함이 가장 비참할 때가 아들 이사악이 “내 아버지!”(히브리어 원문)라며 “바쳐질 희생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같은 말을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주소시오.”(마르 14,36). 바오로가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소중한 보물’을 아껴 놓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며 침묵 중에 아들의 희생제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출발하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영성의 활력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면화한 성인들, 신비가들, 보통 사람들의 체험들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 년 전체, 온 생애를 다스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나이에 이르는 지점에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결합하며,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어둔 밤 안에서도 인내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가장 어둔 밤 한가운데에서도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에디트 슈타인, ‘성탄의 신비’, 1931년 1월 31일). 철없던 어린 시절은 지나가고 새해에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살아야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출발해야겠습니다. 



아가다의 음악편지

쇼팽의 걸작들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고, 그의 걸작들은 행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쇼팽(1810.3.1~1849.10.17)

2015년은 한국 클래식 음악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쇼팽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쇼팽 콩쿠르가 얼마나 대단한 대회인지는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크리스티안 짐머만, 라파우 블레하츠 등 이 콩쿠르의 주요 역대 우승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즉,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들은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자로 올해는 한국의 스물한 살 청년 조성진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에 저는 뒤늦게나마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던 이번 쇼팽 콩쿠르 실황을 찾아서 보게 됐습니다. 과연 조성진 우승자는 완벽한 연주를 들려주더군요. 그가 결선에서 연주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다섯 번도 넘게 들으면서 탄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스토커처럼 저는 그가 결선에 오르기까지 연주한 본선 1, 2, 3차의 다른 동영상 클립도 찾아보고, 이번 콩쿠르에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간 사이트에서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 카타지나 포포바-지드론Katarzyna Popowa-Zydroń이 남긴 아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You are young and amazing artists. If you love music truly and do not care only about career, this unpleasant moment can be valuable for you. The artists need all kinds of experiences. These sad ones even more. Chopin was not a happy person and his masterpieces were not the results of being happy. Please take these results and follow your artistic path, build your personality and success will come. You do not need to look for it, it will find you.

여러분들은 젊고 뛰어난 예술가들입니다.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커리어를 쌓는 데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결과도 당신에게 소중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슬픈 경험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쇼팽만 하더라도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고, 그의 걸작들은 행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부디 이번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예술의 길을 계속 해서 걸어주세요. 성공을 애써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다보면, 성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아쉽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의 글이었습니다. 마음이 웬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입상을 하지 못한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동영상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결선 직전의 본선 3차에 오른 스무 명 중에는 조성진 외에도 한국인 참가자가 두 명이 더 있더군요. 비록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반짝이는 재능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까지 겸비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쇼팽의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죠. 그들이 이번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더욱 더 열심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해가 또 기울어 갑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좋았던 순간, 아꼈었던 일, 그 하루하루를 오선지에 음표로 기록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음악과 닮아 있을까요? 쇼팽의 걸작들이 행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장의 말은 곱씹을수록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행복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 오히려 행복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던 거 같아요. 다가오는 한 해는 조금 더 슬기롭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어떤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가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고마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입문자를 위한 쇼팽 음악 추천

(1) 에튀드 Op. 25 no. 11 '겨울바람'

<겨울바람>은 곡의 선율이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제목이다. 바람이 부는 모습을 화려한 비화성음들과 빠른 속도로 쏟아냈기 때문에 상당한 테크닉을 요구한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2008)>에도 이 곡이 등장한다. 김명민이 연기했던 강마에가 독일 유학 시절 연주했던 <겨울바람>은 라이벌 정명환과의 대결구도로 영상에 함께 등장한다. 곡의 드라마틱한 표현력과 함께 주인공의 절박한 심경이 묻어난다.

(2) 환상 폴로네즈 Op. 61

쇼팽의 건강이 악화되고 사랑하는 연인 조르주 상드와의 이별을 앞두고 있었던 1846년 여름 완성한 곡이다. 쇼팽이 작곡한 폴로네이즈 작품 중 마지막 곡이며, 격렬하고 환상적인 아름다움 속에 쇼팽이 생애 후반에 견뎌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이 잘 녹아 있다.

(3) 피아노 협주곡 2번 Op. 21

쇼팽이 열아홉 살이 되던 해에 약 1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성악전공 여학생 콘스탄치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2악장을 작곡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쇼팽은 소심한 성격 탓에 그녀에게 고백 한 번 못하고 폴란드를 떠났고, 콘스탄치아는 쇼팽이 죽고 난 후에야 모리츠 카라소프스키가 쓴 쇼팽 전기를 읽고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평신도 양서

정리
신동수 편집위원



발터 카스퍼 지음
최용호 옮김, 가톨릭출판사
147X210, 264쪽, 20,000원

발터 카스퍼 추기경의 자비

이 시대 최고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발터 카스퍼 추기경은 이 책에서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는 철학, 교의 신학, 성서 신학, 영성과 사목, 일반 사회학, 마리아론 등 여러 관점에서 자비를 살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자비가 가지는 의미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이 책을 읽는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깨닫고서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이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윤주현 옮김, 생활성서사
140X205, 320쪽, 13,000원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
외롭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과 연대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비의 삶에 대한 교황의 호소를 한 권의 책,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에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사랑으로 형제를 축복하는 자비, 우리 자신을 내어 주며 모두와 삶을 나누는 자비,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나누는 자비,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다리를 잇도록 돕는 자비,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자비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나네테 버트 몬젤루조 지음
문종원 옮김, 성바오로
152X225, 420쪽, 2,2000원

자존감의 모든 것

이 책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고통을 느끼고 있다. 낮은 자존감은 삶을 비관적으로 이끌며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과 기회를 놓치게 한다.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관점을 갖게 한다. 이 책은 자존감에 관하여 학문적인 바탕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법에 이르기까지 책 제목 그대로 ‘자존감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크리스타 슈필링 - 뇌커 지음
윤선아 옮김, 분도출판사
128X188, 128쪽, 8,000원

천사: 삶을 한순간에 뒤바꾸는 친구

당신은 천사를 믿는가? 오늘날 천사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천사를 영적 존재나 체험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옛이야기에서 천사는 인간의 두 눈에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도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 책에는 민담과 동화, 전설에서 가려 뽑은 17가지 천사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천사는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눈앞에서 불현듯 나타나서 인간의 삶을 온통 뒤튼다.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의 삶도 조금이나마 흔들리기를 믿고 바란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줄리아노 비지니 엮음
김정훈 옮김, 바오로딸
145X200, 292쪽, 12,000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이 책은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모아 성경과 교회 문헌에 바탕을 두되 쉽고 편안하게 설명한다.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교회』와 비슷한 구조지만, 신앙의 의미와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칠성사와 성령칠은, 참된 행복선언의 참된 의미, 사제직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꾸밈새 있게 엮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설적이면서도 간결하고 단순한 교황의 고유한 화법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유대의 간절함이 배어 있다.



김성동 지음
서교출판사
147X210, 300쪽, 10,000원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다

가톨릭 평신도가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면서 그간의 신앙생활과 회사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를 묶은 책이다. 1장 ‘일하면서’는 어문 기자로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꾸자는 제언의 경제신문 1000자 연재 칼럼을 모았다. 2장 ‘기도하고’는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참소중한 당신에 기고한 신앙 수필과 교계 봉사직을 수행하면서 쓴 글들 모음이다. 3장 ‘기뻐하다’는 세계 여러 나라 관광지로 초청받아 여행한 후 신문에 게재한 소위 ‘팸투어’ 여행기들이다. 평범한 평신도의 인생 중간 결산서 같은 문집이어서 부담 없이 읽힌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의료봉사 25년 신원한 교수 등 제32회 가톨릭대상에 선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 회장 권길중)는 지난 11월 6일, 제32회 가톨릭대상 최종 심사회의를 열어 사랑부문에 신원한 교수, 문화부문에 가수 김정식, 정의평화부문에 환경운동가 이수용 씨를 각각 선정하고, 오는 12월 10일 가톨릭회관에서 시상식을 연다.

지난 1982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질서의 개선에 이바지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인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가톨릭대상은 매년 사랑부문, 문화부문, 평화평화부문 등 3개 부문에 걸쳐 뛰어난 활동으로 세상을 변화하는 데에 열정을 다해 온 인사들을 종파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선정해 시상해왔다.

● 제2차 상임위원회의 개최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



한국평협(회장 권길중)은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춘천평협) 주관으로 지난 11월 6~7일 1박 2일간 강릉에 위치한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테에서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갖고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개막미사를 집전한 춘천평협 담당 홍기선 신부는 “교회 안에 음해 세력이 우리 안에도 침투되어 신자, 사제, 심지어 교황청에까지도 있다.”며 “파티마 성모 발현을 목격한 루치아 수녀가 ‘악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가정과 혼인이다’고 했던 말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보호 받아야 할 가정과 혼인의 성스러움에 대한 도전에 대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론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최근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번째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한국평협 위원장들이 각 장을 요약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전체 내용을 공부한 후, 실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조별 모임을 통해 회칙이 우리 삶 안에서 실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어진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계획안을 논의하며 내년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가정복음화와 신앙선조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문화의 복음

화,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 활동을 마련하여 내년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둘째 날은 홍기선 신부의 강의로 시작했다. 자비의 특별 회년에 대한 교황의 칙서 『자비의 얼굴』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홍 신부는 문헌을 해설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하고, 이곳에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음을 쓰는 한 해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대도호부 관아 견학에 이어 1921년 설립되어 곧 100주년을 바라보는 임당동성당(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457호)으로 이동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는 파견미사를 봉헌했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는 재물을 이용하여 영리하게 대처한 집사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날의 복음을 해설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이 되어 하느님께 가는方便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며 “무엇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의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강론했다.

● ‘가정복음화’를 주제로 후반기 연수회 개최



한국평협(회장 권길중)은 지난 9월 4일(금)~5일(토) 1박 2일간 제주교구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후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가정 복음화’를 주제로 한 연수회에서 참가자들은 첫날 김대건 신부의 표착지인 용수성지에서 제주교구 총대리 김창훈 신부의 주례로 개막미사를 봉헌했다. 김 신부는 강론에서 “김대건 신부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앙과 민족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그 시대에 맞게 연구하는 자세로 사도직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용석 사회사도직연구소 소장은 2014~2015년 세계 주교시노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현대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한 특강을 했다. 오 소장은 우리 평신도들이 만들고 증언으로 보여야 할 가정의 모습에서 가정복음화가 비롯되며 교회의 가르침대로 ‘가정 안에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나가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강에 이어 현대의 가정에 도전하는 각종 문제들(동성혼, 낙태, 체외수정, 이혼과 별거, 소외된 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 한국교회의 가정복음화에 대한 열린 토론회에는 이제빈 한국메리치앤드카운터(ME) 회장과 마리아사업회 새가정운동 대표 장경선·김수미 부부, 권길중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오 소장은 “고통 받고 소외받고 상처가 깊은 가정을 우리 교회는 늘 바라보고 동행하여 하느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 스스로 또 이곳에 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자”고 토론회를 정리하며 말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금악성당 이여돈 신부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신앙생활이 곧 일반 생활이 되어야 하며 주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론했다.

● 사회사도직연구소 『평신도연구』 창간호 발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용석)에서 평신도 관련 연구논문을 수록하는 학술지 『평신도연구』 창간호

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변진홍 부소장을 편집위원장으로 하여 작년과 올해 발표되었던 포럼에서 발제했던 오용석 소장의 ‘2014~2015 세계 주교시노드의 가정 문제 인식에 따른 한국 교회의 가정 복음화 과제와 평신도 가정 사도직’, 변진홍 부소장의 ‘분단 70년, 민족화해와 통일사도직에 관한 반성적 고찰’, 김창남 연구위원의 ‘복음의 기쁨’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의 실상과 교회의 역할’, 최경호 연구위원의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 분석과 사회개조 방향’ 총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오 소장은 창간사를 통해 ‘저자들은 생업활동을 하며 준비한 내용들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평신도들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연구가 크게 부족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상황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의 역할이 된다면 성령의 은총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개소한 연구소는 2007년 ‘사회사도직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며 평협 부설 연구기관이다. 『평신도연구』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1회 발간되며, 가톨릭 평신도에 관련된 모든 연구와 실천을 내용으로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교회론적 관점에서 집필된 각종 학술논문, 연구 노트, 서평 등으로 엮어낼 계획이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5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박람회 개최
30개 단체 참여 홍보부스
운영과 공연 등 성황리에 마쳐



제48회 평신도주일을 맞아 서울대교구 사목국(국장 조성풍 신부)이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가 주관한 '2015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박람회'가 지난 11월 14~15일 이틀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마당과 명동성당 마당, 1898광장 등에서 열렸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평협 61개 회원 단체 중 30개 단체가 참가해 홍보부스를 통한 단체의 활동과 카리스마를 알리고, 전시와 공연 등을 통해 풍요로운 잔치를 벌였다.

박람회 첫날 1898광장 특설무대에서 봉헌된 개막미사는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각 참가단체 담당사제 15명이 공동 집전했다. 염 추기경과 사제단, 서울평협 임원들은 개막미사 후 공연의 첫 순서인 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회 '에파타'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한 후, 1898광장에서 전시 중인 가

톨릭 사진가회와 가톨릭목공예연구회, 이콘연구소, 전례꽃꽂이연구회의 작품들을 차례로 감상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들 동안 신심단체와 직능 동호인 단체들은 단체 소개와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참가한 단체들은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는 동시에 서로 연대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다른 단체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보며 배우고, 나누며, 함께했다.

1898광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는 매 시간 공연이 이어지며 박람회의 분위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 제12회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 열려
- 대상에 경남 산청의 김종신 씨 수상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는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4일 서울 명동 1898갤러리에서 열렸다. 서울대교구 평신

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가 주최하고 가톨릭사진가회(회장 이강덕)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0여 점의 출품작 가운데 뽑힌 50여 점의 입상작이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전시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구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김효식 교수는 “응모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큰 감동이었다.”며 “촬영의 기술적인 면과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에 함께한 서울평협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교구 사목국장)는 “응모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이 사진을 통해 드러난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응모하여 사랑 · 생명 ·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상을 받은 김종신 씨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이 경남 산청의 장애인, 한센인 공동시설인 성심원에서 근무하며 시설에 생활하는 이들을 자주 사진에 담는다고 밝힌 뒤 “사진을 통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본당 여성대표 및 단체장 교육
인천교구 여성연합회는 지난 10월 20일(화) 9시 30분~13시 30분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본당 여성대표 및 단체장 교육을 실시했다.



교구 사무처장 안규태 신부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대전교구 병원 사목 김선태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12시부터는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부회장 고영민님과 찬양선교사 손현희님이 함께하여 찬양과 식사를 한 후 일정을 마쳤다.

- 제1회 위령기도 경연대회



인천교구 연령회연합회는 11월 7~8일 인천 서구에 있는 마리스텔라 대성전에서 제1회 인천교구 위령기도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교구 선교, 상장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연도 가창의 혼신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경연 대회에는 57개 본당(382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고 영광의 개인전 대상은 제물포 본당이, 우수본당상은 답동, 가좌동, 대부도 본당이, 단체상 대상은 풍무동 본당이 차지했다.

교구장 최기산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위령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다. 대회를 통해 기도하는 교구, 협력하는 교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경연대회에 참가한 이들을 격려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5 하반기 총회장 연수



수원교구 평협(회장 윤광열, 담당사제 이근덕)은 10월 24일(토) 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본당 총회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11,28)를 주제로 2015 하반기 총회장 연수회를 실시했다.

연수 시작에 앞서 교구 평협 임원과 대리구 평협 회장단을 소개하고 신임 총회장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1강의는 원로 사목자 최재용 신부가 '하느님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을, 제2강의는 복음화국장 이근덕 신부가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와 『자비의 얼굴』을 주제로 했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강론을 통해 “총회장들

이 교구의 다리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한 후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이 활성화된 공동체가 지구, 대리구를 활성화시킨다.”고 본당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저와 함께 소통과 참여로 채신하는 교구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 평협 임원 성지순례



수원교구 평협(회장 윤광열, 담당사제 이근덕)은 11월 18일(주일) 영성지도신부와 함께 수리산성지로 '평협 임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교구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최경환 성인 묘역을 참배하고 십자가의 길과 성지를 둘러본 후 성지미사를 봉헌한 후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단체장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효용, 담당사제 이근덕)는 교구 사도직단체 간의 정보

교환과 단체장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9월 11일(금)~13(주일), 영성지도 신부님과 15개 단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로 성지순례 겸 연수를 다녀왔다. 12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믿음과 순교정신을 본받고자 표착 기념관인 용수성지를 순례하였고, 13일 오전엔 성이시돌 목장을 둘러보고 십자가의 길을 바쳤으며 오후에 우도관광을 끝으로 2박3일 주님과 함께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 레지아 청년 브레시디움 간부 연수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단장 정연주, 담당사제 이근덕)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년 단원 및 간부, 봉사자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양연수원(충북 단양)에서 '청년 브레시디움 간부 연수'를 실시하였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영월의 대표적인 관광지 동강에서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래프팅'을 즐겼다. 전날 비가 온 관계로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약 3시간 동안의 래프팅을 하는 동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주했다는 기쁨에서 "수고했다."는 말로 위로했다.

둘째 날은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배론성지(주임신부 여진천)에 들러 황사영 순교자가 머물며 백서를 쓰셨던 장소와 최양업 신부의 무덤을 순례하며 순교자들이 살던 거룩한 땅의 기운을 가슴에 새겼다.

● 여성연합회 단체장 연수



수원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정성연, 담당사제 이근덕)는 9월 17일 교구청 지하강당에서 교구 내 77개 본당에서 온 여성단체장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여성연합회 단체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성 필립보 생태마을 관장 황창연 신부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느님의 정의에 맞춰 가정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주제로 열린 강의를 했다. 황 신부는 과육에 따른 교육열과 경쟁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돈은 곧 성공이라는 허구가 이웃에 대한 배려, 사랑, 자선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느님의 정의에 반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머니들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담당사제 이근덕 신부는 '교회

내 여성 대표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자연과 환경, 가족에 대해 가정과 본당에서 우리 스스로가 의식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참가자들은 대리구별로 따로 모여 대리구 회장을 선출하고, 회의 날짜와 대리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문희종 주교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했다.

● 경제인회 추석맞이 사랑나눔



수원교구 경제인회(회장 박래준, 담당사제 김상순)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9월 18일 교구청 사무처장 사무실에서 있던 기금 전달식에는 김상순 신부를 비롯해 박래준 회장과 이래수 고문, 심규백 감사가 참석해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창해 신부와 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최 바오로 신부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마리아의 집, 성요한의 집, 안산 엠마우스, 평화의 집을 방문해 추석맞이 기금을 전달했다.

●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명사랑마라톤대회

수원교구 마라톤동호인연합회(회장 최효용, 담당사제 김부호)가 주관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명사랑마라톤대회'가 10월 3일 미리내 성지에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장애인 가족을 비롯한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9시 사전행사로 몸풀기 체조를 한 후 최효용 회장의 개회 선언과 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의 축사, 김부호 신부의 인사말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는 10Km, 5Km 달리기와 5Km 걷기로 진행되었다. 10Km 달리기에는 평택대리구장 김화태 신부가, 5Km 달리기에는 이용훈 주교가 참가하여 교우들과 함께 가을색이 완연한 길을 달렸다.

정오에 이용훈 주교 주례, 김화태 신부와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파견미사가 봉헌되었다. 미사 마침예식에서는 5Km, 10Km 달리기에서 1~5등을 차지한 남녀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미사 후 용인본당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을 함께 나누었다. 식사 후 진행된 공연에서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중앙본당 무지개반, 분당성요한본당 우리누

리반, 영통성령본당 푸른누리반, 분당성마르코 본당 사랑반'과 용인본당 예비신학생팀들의 노래와 춤으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나눔 잔치'가 펼쳐졌다.

● 제11회 총대리주교배 어린이복사단 축구대회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회장 윤용현, 담당사제 전삼용)가 주관한 '제11회 수원교구 총대리주교배 어린이 복사단 축구대회'가 10월 4일(주일) 수원 월드컵경기장 내 보조구장 및 풋살구장 등 5개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각 본당은 열두 사도 이름으로 정한 조에 소속되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두 66게임(정규 리그 24경기, 미니 리그 42경기)을 벌여 조별 승부를 가렸다.

오전 11시 운동장에서 어린이복사·부모·가족 등 15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대리 이성호(리노) 주교 주례로 야외미사가 봉헌됐다. 이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각 본당의 미사성제에서 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어린이 여러분들이 축구를 통해 또 다

른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일체감을 이루려 협력하는 모습은 더욱 아름답다."며 땀 흘린 선수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대회를 주관한 교구 축구선교연합회 윤용현 회장은 "미사 등 전례에서 집전 사제를 돕는 어린이복사단이 총명하고 신앙심 깊게 자라나기를 바란다."며 "이긴 팀에는 축하를 보내고 진 팀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교구 축구선교연합회는, 각 본당에서 '어린이복사단 축구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참가팀 수를 늘릴 계획이며, 또한 2016년 5월 중 '제1회 교구장배 중·고등부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13회 노인대학 예술제

수원교구 노인대학연합회(회장 임종인, 담당사제 송영오) 주관 제13회 노인대학 예술제가 10월 8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노인대학생들의 끼를 맘껏 발산하는 멋진 장이 됐다.

● 제5회 가톨릭 전례꽃 작품 전시회

수원교구 전례꽃꽃이연구회(회장 이정숙, 담당사제 송영오)는 10월 20일 가톨릭교육문화회관에서 제5회 가톨릭 전례꽃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전시장에는 교구 내 각 본당 헌화회와 개인 회원이 전

레 시기별로 주제를 정하여 출품한 작품 53점과 송영오 신부의 작품 1점이 함께 전시됐다.



이날 전시회에는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인천교구, 대전교구, 전주교구 등 타 교구의 전례꽃꽂이연구회에서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는 문희중(요한 세례자) 주교 주례의 개막미사에 이어, 테이프 커팅 및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문희중 주교는 강론을 통해, “첫째, 기도하는 봉사자 둘째, 감사하는 봉사자 셋째, 본당 내 다른 봉사자들과 협조하는 봉사자 넷째, 하느님의 신비를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영오 신부는 인사말에서 “꽃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영성으로 아름다운 꽃을 꽃는 봉헌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미사에 이어 테이프 커팅을 한 후 문희중 주교는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을 일일이 돌아보며 출품자의 작품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수원교구 가톨릭전례꽃협회는 2002년 5월에 창립됐고, 2010년부터 격년으로 ‘가톨릭 전례꽃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2015년 1월 제3기 수료식을 했다.

● 제22차 성체현양대회



수원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회장 이소남, 담당사제 배명섭) 주관으로 수원교구 제22차 성체현양대회가 10월 22일(목) 죽산성지에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이날 대회는 1,400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이소남 회장), 제1부 배명섭 신부와 함께하는 공동 성체조배 · 성체거동 · 강복, 제2부 특강(교구 복음화국 부국장 전삼용 신부), 제3부 장엄미사 순으로 진행됐다.

배명섭 신부는 성체조배에 앞서,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아픔, 상처, 고통을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면서 “함께 야외에서 성체조배를 공동으로 바치면서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과 숨결을 더 깊게 느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특강을 진행한 전삼용 신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죄를 가리려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피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우리 안의 죄를 보게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엄미사는 총대리 이성호 주교 주례로 수원대리구장 송병수 신부, 평택대리구장 김화태 신부 및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다.

이 주교는 강론에서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주제로 열렸던 교구 심포지엄을 소개하고 “오늘 성체현양대회의 주제 ‘너 어디 있느냐?’는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와 같다. 우리 주변의 험벗은 사람과 나아가 지구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미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질서의 회복이므로 우리의 행동이 이 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는 현재 교구 내 35개 본당에 설립돼 있으며, 회원 수는 3,500여 명이다.

● 제17회 정기 사진전



수원교구 사진가회(회장 지한구, 담당사제 김우정)는 11월 10일 오후 5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교구 복음화국장 이근덕 신부와 전애리 수원시 예총 회장

등 여러 내빈과 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사진전을 개최했다.

11월 15일까지 열린 전시회의 주제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초대 작품 9점을 포함하여 총 93점이 전시됐다.

특히 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총대리 이성호 주교, 원로사목자 최재용 신부, 이상각 신부, 송병선 신부, 김우정 신부, 신정운 신부, 한정욱 신부, 구영생 신부는 초대 작품을 출품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김우정 신부는 격려사에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전시회 주제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정한 것은 한정된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 세상에 펼쳐 보이려는 것”면서 “오늘 전시회에서 사진 작품을 보면서 마음 속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한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원들은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띤 배경이나 소재를 배제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2대 회장에

한효수 바오로 형제 선임

의정부교구 평단협 2대 회장에

한효수 바오로 형제(애덕의 모후 레지아 대표)가 선임됐다.

의정부교구 평단협(회장 문호, 담당사제 강신모)은 지난 11월 14일 오후 4시 교구청 회의실에서 교구 16개 평신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한효수 바오로 대표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그동안 애덕의 모후 레지아 교구 대표를 맡아 교구 내 덕망이 높은 한 신임 회장은 평단협 감사로 활동해왔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교구 평단협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교구 각 단체 간의 화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 신임회장은 민승주 엘리사벳 복음화학교 대표를 부회장으로 지명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도보성지순례 및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



2015년 9월 19일(토) 한티순교성지에서 도보성지순례 및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1,300여 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참가했다.

대구 팔공산의 선원사 앞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한티순교성지까지 도보로 순례하고 점심식사 후에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중에 이호성 교구 총회장과 박해룡 교구 평단협 회장이 선언문을 선창하고 함께한 참석자들이 제창했으며, 대표가 서명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언문을 교구장 조한길 대주교에게 건넸다.

● 제40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 개최



전주교 대구대교구 체육인회가 주최하고 대구 평단협이 주관한 제40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가 2015년 10월 9일(금)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교정 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교회대항 18개 팀, 직장대항 14개 팀으로 약 250명의 선수와 20여 명의 집행부가 참석하여 실력을 겨루며 팀 간의 친교를 나눴다.

이날 교회대항에서는 하양성당(A그룹)과 옥수성당(B그룹)이 우승하였고, 직장대항에서는 파티마병원(A그룹)과 대구가톨릭대학교(B그룹)가 우승했다.

● 제33차 교구평단협 정기총회 개최

제33차 교구평단협 정기총회를 2015년 10월 31일(토) 개최하였다. 총회 일정으로 교구 사목국장인 박영일 바오로 신부의 2016년 교구장 사목교서 강의가 있었고,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주진혁 꾸르실료 주관이 선출됐다.



조환길 대주교의 신임 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전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김범우 순교성지 제7차, 제8차 도보성지순례



부산교구 평협과 부산교회사연구소는 복자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의 시성과 순교자 김범우의 시복을 기원하는 도보성지순례를 가졌다. 9월 19일, 10월 31일 삼랑진역에서 오전 9시 출발하여 김범우 순교자 묘소까지 묵주기도와 함께 7km를 도보하면서

순례하고 성모동굴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 제190차 상임위원회

11월 16일(월) 오후 6시 30분 부산교구 평협(회장 하창식, 담당주교 손삼석)은 제190차 상임위원회를 부산교구청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선교상 · 평신도 교리교사상 및 사랑 · 봉사상의 안건과 2016년 부산교구평협 사업계획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 문화복음화의 해 폐막미사

한 해 동안 ‘문화복음화의 해’를 보낸 부산교구가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의미에서 11월 27일 남천 주교좌성당에서 오후 5시부터 공지영 작가 북콘서트 등을 마련하고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 주례로 폐막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부산교구 선교사목국이 주관한 ‘신심서적 50권 읽기 독후감 공모전’ 우수 작품 시상식이 있었다. 최연정(에스텔) 금곡성당, 이인경(안젤라) 좌동성당, 정재화(요셉) 옥동성당 등 3명이 최우수상(상금 100만원)을 수상하고 3명이 우수상(상금 30만원)을 수상했다.

● 『부산가톨릭문학』 계간지 가을호 발간



부산가톨릭 문인협회(회장 하창식, 담당사제 이성주)는 1989년 창간, 지난해까지 연 1회 발행돼 오던 『부산가톨릭문학』은 2015년 계간지로 첫 발을 내딛은 봄호에 이어 여름호, 가을호를 발간했다.

한편 『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모집 부문은 △시 · 시조 · 동시(10편 이상) △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2편 이상) △희곡(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2편 이상) △평론(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수필(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3편 이상) △동화(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2편 이상) 등이다. 협회는 당선작을 『부산가톨릭문학』에 발표하고, 작가에게 신인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광주평협(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우원주)은 10월 3일 정해박해진원지인 곡성 일대의 입면초등학교에서 곡성성당까지 약 17.9km를 교구장 김희중 주교와 800여 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하

는 도보성지순례를 가졌다.



이날 순례는 신앙선조들의 뜻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며, 또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소개를 통해 각자가 하느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다짐의 시간이 됐다.

● 2015 평신도대회

광주평협은 10월 24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200여 명의 평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2015 평신도대회’를 개최했다.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 따라 ‘세대별 활성화 및 일치를 통한 본당 복음화’라는 슬로건으로 ‘본당의 해’(2015~2017년) 첫 해를 보내면서 각 본당의 실천사례를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 본당(계림동, 산수동, 중흥동본당)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자세한 소개와 우리 평신도들이 실천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들을 제시했다.

● 지구별 직무연수

광주평협은 교구 내 14개 지구별로 우원주 신부의 ‘하느님 자비의 특별 희년’과 최기원 신부의 ‘사회사목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주제로 2015년도 지구 직무연수를

지구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였다.



순서	일자	지구	장소
1	10. 31(토)	여수	선원동성당
2	11. 1(주일)	나주함평	나주성당
3	11. 7(토)	광주동부, 남부, 북부1·2	평생교육원
4	11. 8(주일)	순천	금당성당
5	11. 14(토)	광주서부, 광산1·2	평생교육원
6	11. 15(주일)	목포무안, 신안	하당성당
7	11. 21(토)	충남부	보성성당
8	11. 22(주일)	서남부	해남성당

마리아 사업회

● 부부 간 ‘용서’의 학교 - 포콜라레 『새가정 운동』에서 마련한 부부 간 대화의 시간

포콜라레운동 내 가정 부문 대중운동인 ‘새가정 운동(New Families)’은 지난 10월 2~4일 2박 3일간 세종시 전의면 가톨릭대학교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새가정 학교>를 열었다. 같은 기간 경북 포항시 ‘갈평 피정의 집’에서도 영남 지역 <새가정 학교>가 동시에 열려 전국의 참가자는 총 240여 명이었다.

부부 간의 ‘용서’를 주제로 한 이번 학교는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리노, 산부인과 의사 리타 벤트

릴리아 부부가 올해 로마 새가정 운동 모임에서 발표했던 <용서에 관한 담화> 요약본을 함께 들고 숙고해 보는 과정과 함께 진행됐다.

“고마워요! 당신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당신이기에... 나의 이 모습 그대로의 나로 받아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한 영혼 되어가며 서로 믿게 해줘서...”라는 말들로 대변되는 이 담화는 참가 부부들에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용서’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일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그 앙금을 그대로 묻어둔 채, 시간을 흘려 보내기보다는, 그 상처에 대해 용기 있게 대면하고 표현함으로써, 서로 용서를 청하며 용서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번 학교에 참가한 부부들이 같은 주제에 공감하면서, 자신들의 경험들과 소감들을 나누었고, 부부만의 대화 시간을 충분히 갖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함께하지 못했던 부부 사이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포콜라레 『새가정 운동』은 부부들의 대화를 위한 이 같은 <새가정 학교>를 매년 가을 열고 있다.

● 본당, “친교의 집, 소통의 학교” - 2015 본당운동 대회

‘2015 본당운동 대회’가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마리아 폴리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각 교구에서 총 142명이 참가한 이번 대

회에는 대다수의 평신도 참가자들 외에도 사제 18명, 수도자 5명이 함께했는데, 참가자들의 절반 이상이 처음 참가했다.



‘본당운동 Parish Movement’은 포콜라레운동의 일치의 정신을 가톨릭교회의 기본 단위인 지역 성당, 곧 본당 공동체에서 생활함으로써, 본당이 ‘친교의 집’이 되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본당 - 친교와 소통’을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본당 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갖가지 불일치의 상황에서 일치의 영성을 생활하면서 화해와 일치에로 나아간 경험담들도 발표됐다.

이날 본당운동 대회 참석자 중 한 명은 “본당에서의 친교와 소통에 관한 체험담에 공감하고 감동했다”며 “이제 본당으로 돌아가 사랑과 일치로써 많은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 미사를 주례한 가톨릭 대학교 신문호 신부는 “예수님의 유언인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를 본당에서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본당운동”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은 월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문의: 이동훈 lotuskr@hanmail.net,
권미옥 amata401@hanmail.net

● 네팔 지진 피해민들에게 희망을! -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이 마련한 “네팔 돕기 1일 카페”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은 9월 5일 토요일, 서울 합정동 버레별씨 카페에서 ‘네팔 지진 피해민 돕기 1일 카페’를 마련했다.

지난 4월 25일 네팔 카트만두 북서쪽 람중 지역에서 진도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5월 12일 다시 진도 7.3의 강진이 강타해 8,6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은 수개월 전부터 네팔 지진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일 카페를 준비해 왔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 30분경에 네팔 현지, 인도 뭄바이, 뉴델리와 한국 등 4개 지점이 스카이프를 연결돼 동시통역으로 화상 통화하는 장면이었다. 네팔 현지의 야맨(Yaman) 씨는 “우리 네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이 보내 준 사랑에 감사한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해 주었다.

주최 측 젊은이들은 이날 카페를 위해 재능기부팀, 소통팀, 영성팀, 주방 서빙팀 등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해 왔다. 영성팀에 속한 이현지 양은 “세계평화를 위해 매일 낮 12시에 함께 마음

을 모아 기도하는 ‘타임아웃’에 대해 알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오늘 세 차례에 걸쳐 방문객들에게 소개했다.”고 전했다.

● 경험담 나누기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 주는 매괴중고 인성 교육, 레인보우 드림 프로젝트

제32회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이 지난 9월 17일 저녁 7시경 국회 본청 3층 의원 식당 별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충북 갑곡 매괴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200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이 학교의 레인보우 드림 프로젝트(Rainbow Dream Project)라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삶의 일곱 가지 측면을 무지개 색깔처럼 구분해 각 측면을 조화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포콜라레 영성을 교육 현장에 접목한 것이다.

매괴고 국어과 김창길 교사는 “매일 전교생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활 경험담을 교내 영상 방송을 통해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며 “청소년기에는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관심이 많은 만큼 호기심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이 기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과정들을 거쳐 경험담이 질적으로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국가 간 화해를 향하여 - 독일의 ‘화해 정책’ 사례 소개,

제33회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

제33회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이 2015년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 국회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렸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사회 포럼에서는 특히 독일의 요하네스 게르스터(Johannes Gerster) 명예 박사가 ‘독일-이스라엘 수교 50주년’과 관련해 ‘적에서 친구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게르스터 박사는 이 자리에서 상호 적대국이었던 독일-이스라엘, 두 나라가 독일의 50년간에 걸친 적극적인 화해 정책으로 신뢰와 우호 관계를 지니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일본 조치대학 허승훈 교수가 ‘탱고는 혼자 추지 않는다’는 주제로 ‘국가 간 화해’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리더십에 대해 발제하기도 했다.

● 사랑 나눔 연탄 나르기 -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 추위 속의 독거노인들과 함께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은 11월 28일(토) 오전 9시 서울 상계동에서 ‘사랑 나눔 연탄 나르기’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겨울나기를 위

한 연탄과 난방 연료를 전달하고, 이 노인들과 말동무가 되어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이날 활동은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회협회

● 전국 가톨릭병원 간호 수도자 연수



한국가톨릭간호사회협회(회장 홍현자 수녀)는 2015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는 간호수녀’라는 주제로 마산교구 가톨릭교육회관에서 간호 수도자 40여 명이 모여 영성연수를 실시했다.

전국 가톨릭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 수도자들이 모여 각자의 사도직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람을 쉽게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

다. 병원 인증과 메르스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이 있어서인지 예년보다 참가한 수도자들이 적어서 아쉬웠지만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2박3일을 함께 보냈다.

● 전국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회협회가 주관하고 춘천교구 가톨릭간호사회(회장 노은영)가 주최한 한국가톨릭간호사회협회 전국 피정이 2015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보광휘닉스 파크에서 개최됐다.

‘만남’을 주제로 전국에서 가톨릭간호사 회원 250명이 모였는데 종일 비가 내린 곳은 날에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나는 피정센터나 교육관이 아니었는데도 모든 순간이 감동이고 치유였던 시간이었다.

주교님의 특강과 성가 지도, 강의, 성찰과 열두 분의 사제들이 늦은 밤까지 주신 고해성사, 감동적인 영상과 강론, 나이팅게일의 선서 갱신이 포함된 파견 미사 등이 피정 참가자들 모두에게 시종일관 감동을 전했다.

섬세한 배려와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반해 준 일곱 분의 사제와 춘천교구 가톨릭간호사회 회원들의 봉사는 일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간호사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심어 주었다. 2016년 피정은 5~6월경 광주대교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

● 서울지역협의회 이나시오 영신수련 실시

서울지역 가톨릭 교수협의회는 11월 14~15일 성바오로 피정의 집(경기도 시흥시)에서 서강대 김용해 신부를 초청해 1박 2일의 이나시오 영신 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수 34명 및 가족과 박홍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담당사제가 참가했다.

● 영남교구협의회 1박 2일 회원 피정



영남 4개 교구 가톨릭교수협의회는 11월 21~22일 안동 농은수련장에서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주제로 1박2일의 피정을 했다. 권혁주 주교의 기

조강연과 정희완 신부(대구가톨릭대 교수)의 '교황 프란치스코와 복음의 기쁨', 정일 총장(가톨릭상지대)의 '교황 프란치스코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분과토의와 발표를 했다.

한국가톨릭 약사회

● 꽃동네 '사랑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는 지난 10월 17일(토) '꽃동네 사랑의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자유주의와 쾌락주의의 현 세대 속에서 꽃동네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지상 낙원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의 손길에 의존하여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모습을 하고 있어 마치 낙원을 보는 듯 했다.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는 '행동하는 사랑'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고 가는 많은 사람들로 언제나 넘친다고 한다. 꽃동네 사랑의 흙씨가 멀리멀리 날아가서 세상이 점점 더 사랑에 물들어 가기를 간

절히 소망해 본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2015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2015년 10월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를 통해 교구 내 맹학교 학생 중 모범 학생을 추천받아 총 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는 시각 장애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한 의지로 학업에 열중하고 재활을 위해 애쓰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수여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교구 내 특수학교인 울산해인학교 학생이 처음으로 대상자에 포함되어 더욱 뜻깊었다.

● 인천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창립 30주년 행사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회원 단체인 인천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회장 장현각 요셉)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10월

25일 오전 10시 인천교구청 401호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담당사제인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3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느님을 믿고 마음의 눈으로 서로를 의지하였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 오랜 기간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준 후원회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회원과 봉사자, 후원회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2015년도 제26차 가톨릭고등학교 학생대회



2015년도 제26차 가톨릭고등학교 학생대회가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에서 2015년 11월 20~22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생대회에 22개의 가톨릭고등학교에서 학생 207명과 인솔교사 42명 등 총 249명이 참가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금년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연기됐다가 수능이 끝난 후 11월에 개최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먼

저 전국에서 모인 가톨릭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어둠에서 자신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기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세상의 어둠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리스도인 학생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 제3회 회원 교육 및 제68차 정기교육

수원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정성연, 담당사제 이근덕) 주관으로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제3회 회원 교육 및 여성연합회 제68차 정기 교육이 10월 22일 교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9개 교구 회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전가톨릭대 총장 곽승룡 신부님이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께 이끌린 영성이 교황 프란치스코'란 주제로 강의를 했고, 파견미사는 문희종 주교의 주례로 거행됐다.



2015년 한 해
계간 '평신도'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Editor's Letter

에디터 레터

그리스도의 평화!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가장 비천한 모습을 취해 강생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계절의 끝자락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물질이라는 우상이 절대적 숭배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시대의 조류는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를 실현해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풍성한 삶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듯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오히려 하느님을 찾는 '영성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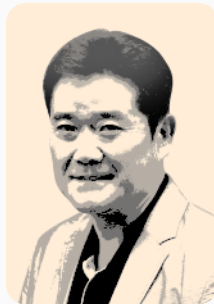
인간 본성을 되찾을 방법을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 찾아보고자 이번 겨울호 주제를 '기도 생활'로 정하였습니다.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통해 초보 신자 시절에 어느 신부님으로부터 배운 기도의 의미, 포콜라레 운동 창시자가 방한하셨을 때 밝힌 기도에 대한 소견,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기도의 힘을 소상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서울대교구 손희송 보좌 주교님도 어린 시절, 유학 시절, 사제 생활을 지내면서 바쳤던 기도의 의미와 현대 삶에 있어서 더욱 더 필요한 기도의 중요성을 재미있고도 기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신도 인터뷰에서는 춘천교구 조흥기 회장님께서 교구 현안과 개인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신도 에세이를 통해 아내와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하느님께 의탁함으로써 참아내며 살고 있는 서울대교구 가락동 성당 고계연 형제님, 개신교에서 개종한 명동성당 류주희 자매님, 예비자 교리를 수업 중인 의정부교구 김상경 형제님이 기도와 관련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호가 편집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내는 책임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들려주신 전국의 평신도 여러분께 허리를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조지프 T. 케리가 쓴 '기도, 질문과 답'에 나오는 글을 발췌해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에 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나 기도는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기 어렵거나 인정하기 어렵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신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며,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진실을 점점 더 잘 깨닫게 된다."

편집장 김선동 루카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 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5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oo6@hanmail.net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권미영	모니카	teletong@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율리안나	doonim53@hanmil.net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김혜원	율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송애련	젼마	ae4789@hanmail.net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 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 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